

특집논문

우리 안의 '내전' - '혐오'·'공감'의 문화정치와 여성

박은미 | 쟁투하는 정념과 분열되는 자아 : 가문소설에 재현된 여성/혐오

: <소현성독>을 중심으로

이정숙 | '개발주의서사'의 '성-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연민'

: 이문구의 『장한몽』과 윤홍길의 『목시의 바다』를 중심으로

이선옥 | 과학주의 시대 - 여성혐오라는 정동

손희정 | 혐오와 절합하고 경합하는 정동들

: 정동의 인클로저를 넘어서 혐오에 대해 사유하기

양경연 | '쓰기-주체-되개'의 정치성

쟁투하는 정념과 분열되는 자아 : 가문소설에 재현된 여성/혐오

: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박은미*

차례

1. 서론
2. 쟁투하는 여성의 정념, 욕망
 - 2.1. 가문 내 여성의 위치적 상관관계
 - 2.2. 정념의 발생, 욕망의 쟁투
 - 2.3. 여성 인물 유형의 고착화 : 미화의 대상, 혐오의 대상을 통한 암묵적 강요
3. 여성 욕망의 인위적 재배치, 분열되는 자아
 - 3.1. 주체적 여성 욕망의 잠재화
 - 3.2. 여성 욕망의 인위적 재배치를 통한 남성 욕망의 실현
4. 결론

<국문초록>

가문소설에서 나타나는 처처(처첩)갈등은 한 명의 남성을 차지하기 위해 다수의 여성이 벌이는 쟁투 과정으로 동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특징이 있다. 17세기는 아직까지 가부장제의 질서들이 정비되어 가던 시기로 가부장제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향유된 <소현성록> 속에는 가부장적 사회를 구축하려는 남성들과 이에 저항하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욕망 추구를 위해 욕망을 버려야만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고 욕망을 버리지 못할 경우 혐오되어 퇴출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추구해야할 미화된 여성상이 제시되고 등장인물은 물론 독자까지도 암묵적으로 강요당함으로써 가부장

*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적 사회 구축을 위한 수신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현성록>을 읽은 독자는 이러한 암묵적 강요에 동조하게 되고 동성 간의 화목을 도모하면서 가부장적 사회질서가 확립되어 갔다. 본고는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소현성록>에 나타난 주체적 여성의식이 가문소설이라는 장르와 결합하면서 굴절되는 여성의 욕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암묵적으로 강요된 동성 간의 화목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가문소설에 재현된 여성 특히 어떤 여성을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봤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핵심어 : 가문소설, 처처(처첩)갈등, 소현성록, 혐오, 미화, 강요, 여성 욕망, 가부장적 사회, 동성 간의 화목

1. 서론

가문소설에서 나타나는 처처(처첩)갈등은 한 명의 남성을 차지하기 위해 다수의 여성이 벌이는 쟁투 과정으로 인간의 정념¹⁾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이러한 쟁투 과정에서 다양한 여성상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남성보다 개성 강한 인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특히 악인으로 형상화되는 여성들은 단순히 악행을 저지르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인물마다 다양한 성격과 시각이 묘사되어 있으며 자신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발현시킨다는 점에서 개성 강한 인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사가 진행될수록 개성 강한 여성은 갈등을 일으키고 이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배치되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인물유형으로 고착화 된다. 왜냐하

1) 이때 정념이란 '대상관계에서 주체가 느끼는 격렬한 고통, 집착, 감정적 동요, 맹목적 욕망 등으로 정의'되며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누르기 어려운 생각을 말한다. (김석, 『정념, 욕망의 목소리 - 세 가지 정념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45집, 고려대 철학연구소, 2012, 236쪽 참조)

면 가문소설의 특성상 가문이라는 공동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특성은 받아들여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는 작품이 바로 <소현성록>이다.

<소현성록>은 초기 가문소설로 평가되는 작품이며 시기로는 17세기 후반으로 추정²⁾하고 있다. 17세기 후반은 “가부장제가 제도적, 관습적으로 강화되어 가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제도적으로는 가부장제의 다양한 질서들이 정비되어 가는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생활사의 측면에서는 가부장제가 정착되는 데서 많은 저항³⁾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현성록> 역시 이 시기를 바탕으로 창작되었기에 주체의식을 가진 여성들이 벌이는 정념과 쟁투, 저항이 잘 나타난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여성들을 제압하는 과정도 혼재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쟁투와 제압 과정을 짚어 가다보면 주체의식을 가졌던 여성들이 가문 내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개성 강했던 여성들이 어떻게 전형적인 인물 유형으로 고착화되어 가는지를 살필 수 있다.

지금까지 <소현성록>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본과 관련된 연구⁴⁾, 작가와 창작 시기에 대한 연구⁵⁾, 장편화에 대한 연구⁶⁾,

2) 임치균은 <소현성록>이 17세기 초반에 이미 유통되었으리라는 추정(이종목, 『조성기의 학문과 문학』, 『고전문학연구』 7, 1992, 194쪽)에 대해 소설사의 흐름을 감안할 때 17세기 초반에 이러한 장편 거질의 작품이 창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임치균은 “첫째, 장편 거질이 탄생할 수 있는 문학적 기반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소현성록>과 같은 작품이 탄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이러한 장편 거질의 필사는 나이가 들어 한가로울 때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용인 이씨는 <창선감의록>이 산출된 시기(작가 조성기 1689년 죽음)에서 30여년 이상 생존해 있었다”를 근거로 <소현성록>이 <한강현전>,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에서 보여준 소설의 연작 장편 가능성이라는 문학적 기반 위에서 1690년 이후 창작되었고 용인 이씨가 그 작품을 필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임치균a, 『<소현성록> 연구』, 『한국문화』 16,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5, 32쪽 참조)

3)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자들』, 『여성문학연구』 1,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130쪽 참조.

4) 박영희, 『<소현성록>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 임치균b, 『조선조 대장편소설연구』, 태학사, 1996 ; 이주영, 『<소현성록>인물형상의 변화와 의미-규

여성 인물에 대한 연구⁷⁾,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⁸⁾ 등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의 논의 방향과 유사한 임치균과 장시광의 논문을 위주로 하여 논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임치균⁹⁾은 <소현성록>이 유사한 세 갈등의 축으로 이루어졌으며 세 갈등은 모두 소부 내부의 갈등으로 이와 함께 소부 외부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세 갈등에 있어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최선의 인물, 중간적 인물, 최악의 인물로 짜여 있다고 보고 중간적 인물은 최선의 인물 쪽으로 발을 대고 있다고 하였다. 세 갈등 모두 혼인의 순서는 중간적 존재와 먼저하고 그 뒤에 최선의 인물과 혼인하며 마지막으로 최악의 인물과 혼인한다고 하였다. 이때 최악의 인물은 최선의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해를 하며 중간적 인물은 갈등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최악의 인물들은 모두 최선의 인물들이 없어져야만 자신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보았다. 특히 임치균은

장각 소장 21장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 노정은, 『<소현성록>의 인물형상화변이 양상-이대본과 서울대 21권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 5) 박영희, 위의 글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장편 규방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4, 고소설학회, 1998.
- 6) 정길수, 『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 7) 백순철, 앞의 글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 정창권, 위의 글 ; 장시광^a, 「소씨삼대록>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온지논총』 9, 온지학회, 2003 ; 장시광^b, 「<소현성록> 연작의 여성수난담과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 28, 우리문학회, 2009 ; 정선희^a, 「가부장제하 여성으로서의 삶과 좌절되는 행복-<소현성록>의 화부인을 중심으로, 『동방학』 20, 동방학회, 2001 ; 정선희^b, 「17세기 후반 국문장편소설의 딸 형상화와 의미 - <소현성록>연작을 중심으로, 『배달말』 45, 경상대 배달말학회, 2009 ;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화연구』 12,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2.
- 8) 백순철, 위의 글 ; 장시광^b, 위의 글 ;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과 연구,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조혜란,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고소설 연구』 36, 고소설학회, 2013 ; 정선희^c,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인물고찰, 『한국고전연구』 12, 2005.
- 9) 임치균^a, 앞의 글, 51~58쪽 참조.

<소현성록>의 중심인 세 갈등이 $A \rightarrow A' \rightarrow A''$ 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이를 갈등의 병렬구조로 지칭하였으며 작가는 이러한 병렬구조를 통해 독자들에게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데 이를 ‘거듭 보여주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각각이 작품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다르다고 하였다. 소현성의 갈등은 소씨 가문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문의 존립은 물론 완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고 보았고 소운성의 갈등은 이미 확고하게 아버지의 위치가 잡힌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가문의 존립이 아닌 일시적인 위협 이후 개인적인 문제로 남게 된다고 보았다. 반면 소운명의 갈등은 가문을 위협할 어떠한 요소도 갖고 있지 않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본 논문은 임치균의 이러한 논의에 동의하는 바이나 두 가지 지점에서 관점을 달리한다. 하나는 갈등의 의미를 바라보는 입장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점이다. 남성인 소현성, 소운성, 소운명의 갈등은 세대가 변화함에 따라 심각성이 감소하여 작품에서 차지하는 갈등의 의미가 다르다고 본다면 여성들의 갈등은 그 위치에 따른 상관관계에 따라 갈등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소씨 가문으로 입성하는 혼사 순서에 따라 위치적 상관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관계에 따라서 욕망이 다르게 분화되기 때문에 갈등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의 주체의식 변화과정이 <소현성록> 속 쟁투과정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소현성록> 속 여성들은 작품 초반만 하더라도 주체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개성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의 개성은 갈등을 야기하고 가문 내 불화를 조장하게 된다. 결국 여성들은 주체의식을 고수하지 못하고 여러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체의식은 거세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소현성록>이 17세기에 쓰인 작품이라는 점과 초기 가문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의 주체의식이 가문소설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주체의식이 제거되고 전형적인 인물유형으로 고착화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남성 입장이 아닌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성들의 갈등은 위치에 따른 상관관

계에 따라서 갈등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과 개성강한 여성들이 가문 내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주체의식이 거세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관점을 달리한다.

한편 장시광¹⁰⁾은 <소현성록>에서 투기의 발생이 바로 여성 수난의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는 여럿일 경우 애정의 분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남편에게서 애정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질투와 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대하소설에서 질투와 시기를 하는 인물은 반동인물로 설정되어 있고, 그녀들에게서 수난을 당하는 인물은 주로 주동인물로 설정되어 여성반동인물이 위해를 가하고 여성주동인물이 수난을 당하는 이러한 구조는 가부장적 혼인 제도의 문제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함의된 문제의식이 작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여성수난담을 통해 볼 때 <소현성록>은 투기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으며 작가가 여성수난담을 투기 경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투기의 경계는 당대 여성에게 투기를 경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면서도 역설적으로 당대 여성이 일부다처제 하에서 겪어야 하는 심리적 억압과 질곡의 실상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한편 여성의 수난을 촉발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가장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애정을 받지 못한 여성을 반동인물로 설정함으로써 가장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이는 가부장제의 모순을 은폐하려는 서술자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논문은 장시광의 이러한 논의에 동의하는 바이다. 특히 남성 인물들이 한 아내는 ‘천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데’에 치우치고 다른 한 아내는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데’에 치우쳤다고 보고 천대와 미움을 받은 여성이 질투함을 인지상정으로 본 것이 그러하다. 반동인물은 화석화한 여성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을 지닌 여성으로 자신의 박대에 대해 충분히 화풀이를 할 여지가 있다고 본 부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다.¹¹⁾

10) 장시광b, 앞의 글, 131~141쪽 참조.

11) 장시광b, 앞의 글, 152~153쪽 참조.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충분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투기의 종류가 각 여성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여성의 위치적 상관관계에 따라서 같은 투기라도 다르게 구현되는 것이다. 여성의 위치적 상관관계는 혼사 순서와 관련이 깊으며 순서에 따라 추구하는 욕망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소현성록>이 크게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로 나뉜다고 해도 각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욕망은 그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주목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들의 개성과 욕망이 가문의식과 결합되는 과정을 통해 17세기 과도기적 여성 의식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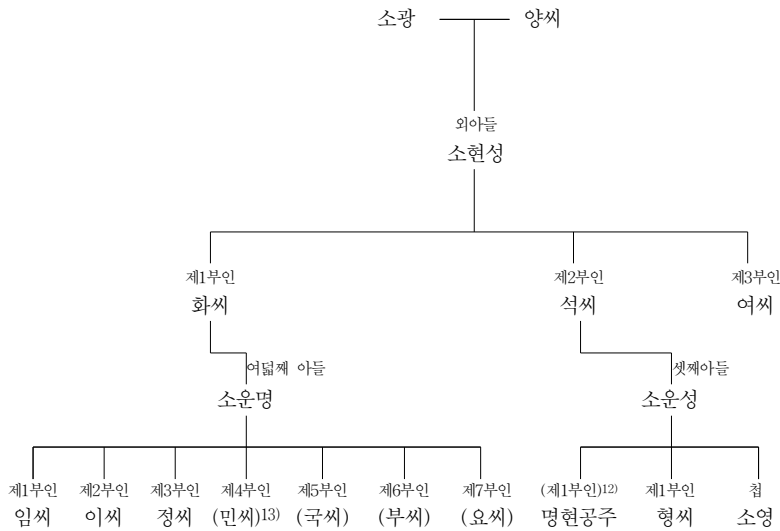
따라서 본고는 작품을 보는 시점을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달리하고 있으며 17세기라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의 주체의식이 가문의식과 결합되면서 굴절되는 변화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여성의 위치적 상관관계에 따라서 그 욕망이 다르게 구현된다는 점에서 <소현성록>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세 가지 목적을 논의 방향으로 삼았다. 첫째 갈등 관계를 여성으로 설정하고 여성 갈등의 의미를 위치에 따른 상관관계에 있음에 주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여성들의 주체의식이 가문소설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형적인 인물유형으로 고착화되어 가는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여성들에게 암묵적으로 강요된 동성 간의 화목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쟁투하는 여성의 정념, 욕망

<소현성록>은 3대에 걸쳐 매우 다양한 인물관계가 형성된다. 등장인물만 해도 90여명에 육박하는데 그 중에서도 처처(첩)관계가 가장 복잡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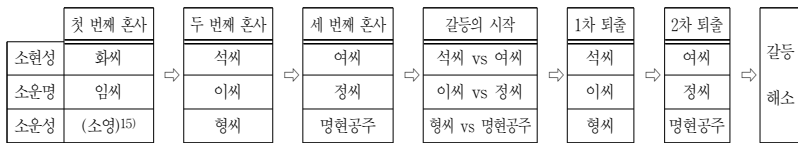
다음은 <소현성록>의 가계도 중 일부이다.



『소현성록』은 유사한 갈등 구조를 통해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소현성과 소운성, 소운명이다.¹⁴⁾ 서사는 세 인물 모두 ‘혼사→갈등→퇴출→갈등해소’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세 명의 남

- 12) 원래 형씨가 제1부인으로 들어왔다가 명현공주가 소운성과 늑혼을 하면서 형씨는 제1부인 자리에서 밀려난다. 그러나 형씨는 제2부인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제1부인이라는 지위에서 퇴출당하는 것이다. 이후 명현공주가 죽음으로써 형씨는 다시 제1부인의 위치에 서게 되므로 명현공주와 형씨 모두 제1부인으로 지칭하였다. 다만 명현공주의 지위는 괄호로 표기하여 형씨와 구분하였다.
- 13) 소운명은 소현성, 소운성과 다르게 총 일곱 명의 부인을 얻게 되는데 이때 사건은 주로 임씨와 이씨, 정씨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민씨, 국씨, 부씨, 요씨는 잠시 이름만 언급될 뿐 어떤 갈등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계도에 이름은 언급하되 본문에서는 임씨, 이씨, 정씨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민씨 등은 괄호로 표기하여 구분하였다.
- 14) 이러한 구조는 임치균의 논의(임치균a, 앞의 글)에 따른 것이다. 이때 임치균은 중간적 인물, 최선의 인물, 최악의 인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본고에서는 위치에 따른 상관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혼사 순서에 따라 제1부인, 제2부인, 제3부인으로 나눠서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성은 각각 세 명의 여성과 차례로 혼사를 치르는데 첫 번째 혼사는 집안과 집안의 혼사로 이루어지며 두 번째 혼사는 본인 혹은 주변인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혼사는 늑혼으로 상대 여성 본인 혹은 여성 집안의 지목을 받아 이루어진다. 이때 2차에 걸친 퇴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1차는 현부(賢婦)가 퇴출되고 2차는 악부(惡婦)가 퇴출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장에서는 먼저 소현성, 소운명, 소운성의 서사적 구조에 주목하고 갈등관계를 맺고 있는 제1부인, 제2부인, 제3부인이 가문 내에서 어떠한 위치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들 여성이 각각 품고 있는 정념이 어떤 쟁투과정을 거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들 욕망이 수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의식이 가문소설과 결합하면서 전형적인 여성상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5) 소영은 1차로 소운성과 관계를 맺으나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첩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소영은 정식적인 혼사 절차가 아니라 소운성이 겁탈하여 얻게 된 여인으로 이를 불쌍하게 여긴 태부인의 배려로 첩지를 받게 된다. 특히 형제들이 아버지 소현성이 없는 틈을 타서 창녀들을 데리고 놀 때 소운성은 소영을 데려오는데 이는 소영의 위치가 첩보다도 못한 창기의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영은 집안에서 어떠한 발언권도 없으며 어떠한 갈등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소영은 철저히 순종적인 태도를 보일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체의식을 지닌 여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터라 주체의식을 지녔다고 볼 수 없는 소영은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2.1. 가문 내 여성의 위치적 상관관계

<소현성록> 속 여성의 위치적 상관관계는 혼사 순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 번째 혼사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두 번째 혼사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혼사는 늑혼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여성의 혼사 순서는 여성의 가문 내 위치 확보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며 이에 따라서 <소현성록>의 가장 큰 서사 구조인 처처(첩)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물론 가문소설의 특성상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가문의 안정, 창흥, 유전이라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가문 내적 안정을 담당하는 세대, 창흥을 담당하는 세대, 이전 세대의 유산을 유지하며 가문 창흥의 정점을 이루는 세대 등으로 분류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바는 <소현성록> 전체의 구조가 아니라 처처(첩) 갈등이라는 구조 속 여성이기 때문에 혼사 순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고는 세대별 역할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각 여성들이 가문 내로 진입하는 순서에 초점을 맞춰 여성의 가문 내 위치적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혼사이다. <소현성록>에서 첫 번째 혼사는 부모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다. 따라서 첫 번째 혼사는 정식 혼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본래 조선시대 혼례는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¹⁶⁾에 따라 거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혼인의 결정은 “결혼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혼주, 즉 가장의 의사”에 따라야

16)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 따르면 혼인은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靑期), 친영(親迎)의 여섯 가지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조선에서는 주로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네 개 절차를 수용하였다. 납채는 혼인하기로 정했음을 통지하는 것이고 문명은 신부의 출생, 성명, 생년월일을 문의하는 것이다. 납길은 궁합이 맞아 길함을 통지하는 것이고, 납징은 정혼이 되었다는 증거로 폐백을 보내는 것이며, 청기는 혼인날짜를 정하는 것이고, 마지막 친영은 신랑이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 (최일성·김현정 공저, 『한국 여성사』, 백산자료원, 2006, 139~140쪽 참조.)

했는데 이는 “가부장권의 강화에 따른 현상으로 혼례의 의식 또한 부모나 집안 어른에 의해 주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묵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반드시 중매(仲媒)가 있어야 혼사가 성사되었는데 이는 혼주 역시 혼례의 당사자라는 인식으로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은 마치 상(商) 행위처럼 고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¹⁷⁾ 이처럼 조선시대 혼례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이 주가 된다. 따라서 첫 번째 혼사는 다른 혼사와 다르게 인물이 아닌 가문을 우선시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인물에게 결합이 나타나기도 한다. 소현성의 제1부인인 화씨와 소운성의 제1부인인 임씨가 그러하다.

(가) 시누의 경영노라하고 소아작약흔 기질이 상하티 아니되 오히려 신양의 눈 굵든 슬빛과 덩슈의 효성이 비췌듯 혼씨와 단순호치의 즈치롭고 괴이하며 틈똥흔매는 밋디 못흐미 먼디라 부인이 가장 서운흐야 쾌흔 빗치 업고 가똥 노쇠 다 낮비 너기더니¹⁸⁾

(나) 아름답기의 버서날 썬 아니라 극히 흥흐니 제인이 혼 번 바라보매 문득 놀라온디라 늦치 누르고 거므며 크 가장 적고 허리 퍼디며 얽고 미사 형용이 고이홀 썬 아니라 늦치 큰 흑이 세히나 좌우로 드리워시니 가히 무염의 디난 박식이라 (3권, 531쪽)

(가)는 화씨를, (나)는 임씨를 묘사한 것이다. 화씨와 임씨는 첫 번째 혼인 대상자로 정식 혼인 절차를 거쳐 들어오게 되는 조강지처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개인적인 결합이 있다. 화씨는 외모로는 크게 문제되지

17) 최일성·김현정 공저, 앞의 책, 140~141쪽 참조.

18) 정선희, 조혜란 역주, 『소현성록』 1권, 소명출판, 2010, 409쪽 참조. 본고에서는 본문 인용시 정선희, 조혜란 역주본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본문 인용시 인용문에 권수와 페이지만 표기하도록 하겠다.

않으나 성격적인 면에서 결합이 발견되고 임씨는 성격적인 면에서는 부덕을 갖추어 나무랄 곳이 없으나 외모 면에서 상당한 결합이 나타난다. 임씨는 외모적인 면에서 결합이 발생하여 특히 남편인 소운명과 깊은 갈등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임씨의 결합은 단지 외모적인 것일 뿐 임씨는 부덕을 갖추고 있는 여인이었다. 따라서 임씨의 결합은 이러한 임씨의 부덕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해 발생된 결합으로 임씨의 부덕을 알아볼수록 이러한 갈등은 해결된다. 즉 임씨는 그녀의 부덕을 알아본 가문 사람들의 비호 아래 자신의 자리를 다져 나갔고 결국 자신을 냉대하던 소운명마저도 감동시켜 가문 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음으로써 임씨는 결합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반면 화씨는 외모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성격 면에서 갈등 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남편에 대한 성적 욕망을 드러내어 투기를 해 가문 내 불화를 조장한다. 하지만 화씨는 가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교화되고 이에 화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가문 내로 재편성된다. 이처럼 개인적인 결합은 개인의 노력과 가문 사람들의 비호 아래 극복될 수 있었다. 따라서 첫 번째 혼사는 비록 개인적인 결합이 발생하더라도 가문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결코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명현공주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명현공주는 화씨처럼 자신의 성적 욕망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지만 화씨와 다르게 가문사람들의 교화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어 가문 밖으로 퇴출되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혼사 순서와 관계되는 것으로 첫 번째 혼사로 결합한 화씨와 다르게 명현공주는 세 번째 혼사로 가문 내에 진입하기 때문에 위치적 상관관계에 따라서 화씨와 다른 입장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첫 번째 혼사로 가문 내로 진입한 여성은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가문과 가문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확고한 위치에 서기 때문에 결국 가문 내에서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혼사로 가문 내에 편입되는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외모는 물론 내면까지 아름다우며

악을 인내하고 가문의 존속을 최우선시 하는 인물로서 어떠한 시련도 견뎌내는 인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소현성록>에서 석씨, 이씨, 형씨¹⁹⁾ 등이 이러한 여성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작가는 왜 이처럼 완벽한 여성을 제1부인이 아니라 제2부인의 자리에 배정한 것일까. 이도 혼사 순서에 따른 위치적 상관관계와 관련된다. 가문소설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것은 바로 가문의 영달이기 때문에 혼사도 제1순위는 가문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소씨 가문은 첫 번째 혼사를 좋은 가문의 여성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개인이 주가 된 것이 아니라 가문이 주가 된 것으로 개인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두 번째 혼사는 가문보다는 개인의 만족도를 위한 것이므로 가문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따라서 두 번째 혼사로 가문 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외모는 물론 성격적인 면에서도 완벽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 이욱고 신뵤 나와 폐빅하는 네를 뭇고 새 단장을 곳쳐 존고씨 헌작
 홀식 다만 보건대 안식은 빅년 궂고 아미는 원산 궂트며 명모는 낭성 궂고
 낭협은 도화궂트며 듀슌은 잉도 궂고 테지 신둥하고 동지 민첩하며 신당과
 풍치 염이홀 곳이 업서 사름으로 흥여금 정신을 일코 궂음을 어리게 하니
 흥 번 브라보매 기용티경홀디라 (2권, 454쪽)

19) 형씨의 경우 제1부인에 속하나 이미 첩인 소영과의 결합 이후에 들어오며 정식 혼인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부인의 성격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형씨는 제1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제2부인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본고에서는 배치상 제2부인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함께 언급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소운성이 소영과 혼인으로 결합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형씨를 두 번째 혼사로 보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여성이 가문 내로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결합 순서에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소영이 소운성과 정식 혼사를 치뤄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지만 소운성이 첫 번째로 결합한 여성이 소영이기 때문에 형씨가 두 번째로 가문에 입성한 것이 된다. 따라서 형씨는 그 결합 순서상으로 두 번째 혼사에 가까운 인물로 분석하게 된 것임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나) 골격은 취슈의 괴운을 품고 옥 그릇 기보는 슈정을 사긴 듯하야 연 〳 경영하고 〳는 허리 세류 일지 광풍의 부치이고 흰 니마흔 빅설이 영기고 나비 눈섭은 초월이 운동의 엷보며 프른 머리털과 불근 귀티 별 그릇 안치 낭성을 거렸는듯 자약하고 표일하야 노는 봉 그트니 풍취 한가하고 네뵈 유헌하야 진실노 오디 금피라도 아름다오물 전쥬티 못하고 월궁 흥이 붓그려오물 먹음닐디라 (3권, 564쪽)

(다) 신뵈 이목 스이에 나타난 정신이 쥬슈의 빗난 거슬 나모라 흥며 설부화피 옥을 공교히 사겨 치식을 메운 듯 낭목은 강산의 맑은 것과 아미의 그린 듯한 스월미오니마는 반월이 텅텅의 빗겼고 빵환은 초디 구름이며 흐워 소담흔 두 귀밧튼 흥년화를 고갓는 듯 어리로운 괴질은 양비의 어리로오물 점득하얏고 잉순옥치는 단사의 어름 그타며 낭협은 무릉삼석되 이슬을 썰턴 듯 찰난흔 풍취 쥬월이 탁운을 버스며 남뵈빅벽이 듯글을 시순 듯 신상의 일천풍취 완전하고 안모의 우치 어른거려 일광을 그리오니 (5권, 342쪽)

(가)는 석씨, (나)는 이씨, (다)는 형씨를 묘사한 것이다. 세 부인은 외양적인 면에서 매우 아름다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된다. 거기에 인품 면에서도 나무랄 데가 없으니 가족들이 첫 번째 혼사에서 느꼈던 결핍은 모두 해소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2부인에 해당하는 여성이 가문 내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적법한 절차를 밟은 제1부인은 가문 내로 진입하는데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지만 제2부인은 적법한 절차가 생략되고 당사자 개인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사장애가 발생하여 가문 내로 진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²⁰⁾

20) 석씨는 우연히 만나게 된 소현성의 누이 월영에 의해 혼사가 진행되고 이씨는 부모를 잃고 남장을 한 채 떠돌던 중 우연히 소운명을 만나 소운명에 의해 혼사가 진행된다. 형씨는 우연히 형씨 집에 들렀던 소운성이 형씨에게 한 눈에 반하여 혼사가 진행된다. 이처럼 세 명의 여성은 가문 간의 혼사절차가 아닌 주변 인물 혹

그러나 이러한 혼사장애는 제2부인을 미화시키기 좋은 위치로 만들게 된다. 제2부인은 제1부인처럼 가문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당사자 개인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가문 내의 위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이에 따라 제2부인은 제1부인이 가지지 못한 자질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제2부인을 가문 내에서 가장 최적화된 여성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제2부인이라는 위치상 가정 내에서 중간자적 위치에 속하기 때문에 위로는 부족한 제1부인을 섬겨 가문을 존속시키고 아래로는 악부(惡婦)의 만행을 견뎌내어 가정의 화목을 지켜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만든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은 세 명의 부인 중에서 제2부인을 가장 완벽한 여성으로 형상화시킬 수밖에 없었으므로 가장 완벽한 여성상은 제2부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세 번째 혼사는 늑혼으로 발생한다. 소씨 집안에서 원치 않는 혼사였기 때문에 혼사 과정에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되거나 혼사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소현성록>에서는 여씨와 정씨, 명현공주가 해당한다. 이들 중 여씨와 정씨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장의 결정에 의해 제3부인으로 가문에 편입된다.

(가) 추밀스 녀운이 삼즈스녀를 두어 데 이네 용피 아름답고 직죄 민첩하니 추밀이 스랑햐야 가셔를 곁히더니 상셔 북야 소경이 당세에 영웅으로 군즈의 풍이 잇는디라 쓰디 기우러 비록 삼취라도 감심햐야 드러보내고져 하디 듯디 아닐가 의려햐더니 상이 소경으로 상태우를 더으시니 녀운이 승시햐여 후궁 녀귀비는 이 곳 친딜이라 ㄱ만이 도모햐니 텃진 신텡햐야 소현성

은 혼사 당사자에 의해서 혼사가 진행된다. 이로 인해 혼사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데 특히 이씨와 형씨의 혼사가 그렇다. 이러한 혼사장애는 혼사 당사자인 소운명과 소운성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며 중매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씨의 경우 비록 소현성의 누이에 의해 혼사가 진행되었지만 중간에 팔왕이 중매를 서서 혼사를 주관했기에 이씨나 형씨와는 달리 그래도 수월하게 가문 내로 진입할 수 있었지만 이씨와 형씨는 소운명과 소운성에 의해 진행되는 까닭에 이들이 가문 내로 진입하기까지 상당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을 명토하야 니르사되 담이 드러니 경이 삼 부인을 2초디 아낀다 흥논디라
 추밀스 녀운의 네 숙녀의 품이 잇다 하니 특별이 작미하야 경의 셋재 부인
 을 명하리니 경의 뜻이 엇더뇨 (2권, 466쪽)

(나) 황회 일즉 후궁 덩귀로 더브러 말씀하셔 죽딜의 수를 무르실시 귀비
 는 덩참덩의 스촌 미라 이에 문득 흥 계교를 상냥하야 데후의 알피셔 늑죽
 이 외고 왓 신첩의 죽딜 덩시는 덩창의 네라 나히 츠도록 군즈를 스모하야
 가비아이 덩흔흔 더 업습나니 네부시등 소운명을 보고 뜻을 곁하야 섬기고
 저 하디 더 집 주의를 아디 못하야 평심을 혼자 늑고져하니 복원 성상(과
 낭)은 소문의 던교하샤 아화를 빗내고 덩녀의게 흥이 업게하쇼셔 ... 드디
 여 던교를 느리와 덩창의 녀로 운명의 셋재부인을 덩하라 하시니 덩창은 깃
 거하고 소승상과 세승이 황은을 감격하나 외람하물 저허하더라 (10권, 58
 2~583쪽)

(가)는 추밀사 여운이 소현성의 인물됨을 보고 반하여 자신의 딸을 셋
 재 부인으로라도 들여보내고자 천자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고 (나)는 정
 창외의 사촌누이인 정귀가 주도하여 혼사를 추진하는 장면이다. 여씨와 정
 씨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정에 의해 정식 혼인 절차를 거쳐 소
 씨 가문에 편입된다. 따라서 소씨 가문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소씨 가문에서 원치 않는 혼사였기 때문에 가문
 내 위치가 매우 불안정하여 위치 확보를 위한 쟁투가 벌어지게 된다.

<소현성록>에서 제1부인이라는 위치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더라도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묶인 관계이기 때문에 가정 내의 위치는 확고하
 고 제2부인 위치 또한 남편의 확고한 사랑 아래 만들어진 자리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이 지속되는 한 그 위치는 견고하다. 게다가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미화되는 위치이므로 가문 내 위치는 확고하다. 반면 제3부인
 의 위치는 이와는 다르다.²¹⁾ 이미 조강지처인데다 가문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제1부인 때문에 가문 내 위치를 공고히 하기도 어렵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제2부인 때문에 남편의 사랑도 얻기 힘든 위치인 것이다. 따라서 가문 내에서 제3부인은 자신만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부인이 차지한 자리 중 한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제1부인을 퇴출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제1부인이라는 위치는 가문 간의 결합인 동시에 조강지처라는 가부장적 사회 질서 속에서 확고부동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부인은 제2부인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위치적 불안감은 시기심으로 굴절되어 악행으로 치닫고 만다. 이는 결국 이들이 처음부터 악부였던 것이 아니라 악부가 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명현공주는 여씨, 정씨와는 다른 입장이다. 비록 세 번째로 혼사를 치렀지만 이미 가문 상으로 형씨와 첩인 소영을 압도한다. 황제를 등에 업은 공주라는 위치는 명현공주를 제3부인이 아닌 제1부인의 위치에서 갈등하도록 만든다. 이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한다. 여씨나 정씨는 제3부인이라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문으로 편입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명현공주는 제3부인이 아니라 제1부인으로 소씨 가문에 진

21) 이승복은 첩이나 부실은 일반적으로 지배적 가치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악인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처첩 갈등 자체가 그들의 이러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 발생하는데 갈등의 동기는 첩이나 부실이라는 신분 혹은 지위에 대한 불만, 남편의 애정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라고 하였다. 대체로 첩의 경우 신분갈등적 성격이, 부실의 경우 애정갈등적 성격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타고난 성격적 결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갈등의 동기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첩과 부실의 태도를 살피기 위해서는 갈등의 동기만 주목하기보다는 그것과 관련하여 갈등의 전과정에 걸친 그들의 태도와 행위가 처첩갈등이라는 문제의 범위내에서 나름의 근거와 타당성을 지니도록 형상화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악을 위한 악으로 형상화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34~35쪽 참조.) <소현성록>의 경우 처첩관계가 아닌 처처관계로 설정되어 있으나 제3부인의 경우 늑혼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제1부인이나 제2부인과는 다른 형태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은 애초부터 악인은 아니며 점차 악인으로 형상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해야 하는데 문제는 형씨가 이미 제1부인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비록 형씨가 정식 혼인절차를 밟지는 않았으나 어찌되었든 소씨 가문에서 제1부인이라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명현공주가 가문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형씨를 제2부인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변수는 바로 명현공주 자신이었다. 여씨, 정씨와는 다르게 명현공주는 스스로 소운성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는 명현공주가 성적 욕망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었고 이로 인해 소운성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소운성은 이를 거부하며 가문 내로 편입되기 전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 즉 명현공주가 자신의 욕망을 걸으며 내보이는 순간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소운성은 물론 가문 사람들에게 외면 받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명현공주는 여씨, 정씨와는 다르게 악부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된다. 즉 명현공주의 선택이라는 조건이 명현공주를 가장 최악의 악부로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현성록>은 혼사 순서에 따라 여성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다. 먼저 첫 번째 혼사로 가문에 영입된 여성은 가문의 영달이라는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지만 개인적인 결함을 설정하여 두 번째 혼사가 이어지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혼사로 가문에 영입된 여성은 개인의 인물됨에 초점을 맞춰 가장 완벽한 여성상을 연출해 냈고 이를 통해 가문소설에서 추구하는 이상화된 여성상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혼사로 영입된 여성은 늑혼이라는 장치를 통해 처음부터 가문 내 위치를 불안정하게 설정하여 악부의 조건을 성립시켰으며 이로 인해 철저히 가문에서 배척되는 혐오의 여성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2.2. 정념의 발생, 욕망의 쟁투

앞서 <소현성록> 속 여성은 혼사 순서에 따른 위치적 상관관계에 따라 그 역할이 정해져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성의 욕망 또한 이러

한 위치적 상관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²²⁾

먼저 첫 번째 혼사로 가문에 입성한 화씨와 임씨이다. 임씨는 인품 면에서 완벽한 여성이기 때문에 화씨보다는 오히려 석씨나 이씨, 형씨와 유사한 성격의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석씨 등과 다르게 남편과도 불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조강지처의 위치에 속해 있으면서 처처(첩) 간의 갈등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임씨는 가문에 입성한 초반 남편의 냉대를 이겨내고 남편의 인정을 받은 이후로는 어떠한 갈등에도 참여하지 않고 가문의 화합을 도모하여 가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쟁투에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여성이 되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할 점은 임씨가 비욕망을 욕망하는 인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임씨가 오로지 가문의 화합만을 도모하는 것이 임씨가 지닌 욕망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 임씨는 사회 제도에 의해 교화되고 교육되어진 사회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화씨는 성격적인 면에서 교화가 필요하나 임씨는 <소현성록>에서 추구하는 특화된 성격의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외모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완벽한 부덕을 갖추고 있기에 비욕망적인 인물로 비취짐으로써 <소현성록>이 추구하는 여성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임씨의 그러한 욕망은 사실 스스로의 욕망이라기보다는 사회화된, <소현성

22) 본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물에게 주어진 서사적 지위와 공간에 따라 행위의 제약이 주어지고 그에 따라 욕망마저 좌우된다는 것인 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욕망이라면 그 주어진 욕망을 통해 인물의 ‘주체성’을 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받았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바는 개별적인 주체성을 가진 인물이 위치적 상관관계에 따라서 제약이 주어지고 그에 따라 욕망이 형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기적 특성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즉 주체적이었던 여성이 가문 내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주어진 위치에 따라 그 욕망이 제한되는 과정을 거쳤고 그마저도 남성의 시선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제한되었다. 따라서 본고의 취지는 주체적인 여성이 가문소설이라는 장르와 만나면서 욕망이 제한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여성의 주체성이 잠재화되어 있다가 모든 갈등이 종식된 상황에서 겉으로 드러나 갈등관계를 형성하나 이마저도 수용되지 못하는 과정을 과도기적 특성으로 보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은 주체적 욕망이 제약적 욕망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욕망도 인물의 ‘주체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논의임을 밝히고자 한다.

록>에서 추구하는 미화된 여성상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화씨는 임씨와는 다르게 처처(첩) 간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화씨는 가장 먼저 소현성에게 시집와서 제1부인의 위치에 오르는 조강지처지만 개인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제2부인을 맞이하게 된다. 이로 인해 화씨는 투기심을 조절하지 못하고 표면화시켜 가족들과 끊임없이 갈등하게 된다.

너희 부인이 엇디 날드려 어스의 형장을 출혀 달나 호노 당」이 석가 천녀를 드려와 브릴찌니 나는 월영의 시네 아니니 못호리로다 너희 부인은 남진의게 고향하시므로 여러 창녀로 더브러 통을 호노라 도히 너기나 나는 더러이 너기노라 임의 상셔의 길복을 짓거니 이 곳티 한가하며 날을 브리려 헛더나 궤히 돌아가 너희 짓부인다려 니르라 미친 오라브 길복을 지으니 이 곳티 한혈하니 엇디 다스하리오 내 지어주고져 호나 늬의 일 호시 논가 사브니 이런즉 내 부절 업시 슈고홀 일이 업서 도로 보내노이다 호라 (1권, 450~451쪽)

위 인용문은 소현성과 석씨가 혼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화씨가 질투를 본격적으로 표면화시키는 장면이다. 화씨는 이를 계기로 패약을 부리기 시작한다. 화씨는 제2부인인 석씨가 들어올 때 혼례복을 짓는 문제로 남편을 포함하여 소현성의 누이인 월영을 모욕하는가 하면 제3부인인 여씨를 들일 때는 여씨를 추천한 황제까지 비판한다. 또한 석씨를 들일 때 석파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는 석파에 대한 원망에 칼로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화씨는 남편과 시댁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아이들을 이유 없이 때려 그 한을 풀기도 한다.

이러한 화씨의 패약은 모두 소현성에 대한 독점욕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화씨의 패약은 제2부인이 아니라 당사자인 소현성과 처를 들일 때 방조하거나 지원한 시댁 식구들에게 향한다. 즉 화씨는 제3부인들과는 다르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을 남편에게 묻고 있기 때

문에 제2부인과의 갈등을 크게 겪지는 않는다. 물론 제2부인에 대해서 질투를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소현성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악부들과는 차이가 나타난다.

반면 석씨와 형씨, 이씨는 제2부인으로서 소설 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가문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자존하면서 행동하는 개체적이고 주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가문이라는 집단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로 존재하는 부분적이고 종속적인 인물”²³⁾이다. 따라서 “개인은 가문 구성원의 하나로 가문의 이익과 영화를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하며, 항상 가문의 존재 의미를 의식”²⁴⁾하고 있다. 따라서 석씨와 이씨, 형씨는 오로지 가문만을 생각하며 그로 인한 개인적인 희생쯤은 얼마든지 감내하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이들은 주체성이 드러날 만한 개인의식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행동하여 개인이 아닌 가문을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여성은 화씨와는 다르게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가문의 존속이라는 대의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욕망이 흔들릴 때 쟁투를 벌이게 된다. 그러나 이때 쟁투 대상에 있어 석씨 등은 화씨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화씨가 쟁투의 대상으로 소현성을 선택한 것과 달리 석씨 등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자신과의 쟁투, 즉 ‘인내’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석씨 등은 소씨 가문 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혼사 장애를 겪게 되고 진입한 이후에도 제3부인의 간계로 인해 끊임없이 인내를 시험받게 된다. 이때 석씨 등이 제3부인과 반목하게 된다면 이들이 추구했던 가문의 존속이라는 욕망은 그 명분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인내’라는 대응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방식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먼저 석씨와 이씨이다. 이들의 인내하는 태도는 의도치 않게 제3부인

23) 조용호, 『삼대록 소설의 인물구성』, 『고소설 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203쪽 참조.

24) 위의 글, 204쪽 참조.

의 악행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 그뒤 내 집의 오난 디 스년의 므스 일이 브족하야 이런 패힘을 흐노
노 석시 눈물을 머금고 머리를 두드려 왈 쇼첩이 불혜흔 기질노 성은을 후
히 밧즈와 종신토록 우리 ” 시죽고져 흐더니 효성이 업스와 망극흔 변을 만
나고 첩이 어제 월아의 서당의 갓더라 흐니 이는 창턴의 죄를 느리오시미라
입이 이시나 능히 발명티 못흐니 스죄를 청할 싹틈이로소이다 (3권, 483쪽)

(나) 이날 니시 흐 썸을 어드니 일위 가인이 손의 보검을 들고 쇼져를 향
하야 꾸지저왈 그뒤 전세에 망령도이 존대흔 테하고 날을 압두흐며 남즈를
쫓와 귀항가물 즈원하고 날드려 닐오디 맛망이 십년을 당부와 기절하야 언
약을 저버리디 아니리라 흐더니 실기흐미 여츠흐니 엇디 그뒤로써 평안케
흐리오 드디어 칼홀 드러 바로 디르고져 흐니 정히 위급흐엿더니 소싱이 드
러오니 그 녀지 년망이 도라가거늘 쇼제 이에 놀라 씨드르니 남가일몽이오
(10권, 584쪽)

(다) 홀연 보니 이 곳 덩시라 만면의 살기를 썩여 던도히 니르거늘 쇼제
경아하야 년망이 금 ” 을 헤티고 니러 마줄식 덩시 옷스이로서 서리근튼 칼
홀 썩혀 불분시하고 바로 쇼져를 향하야 디를 의식 급흐디 마춤 시네 다 나
가고 방문이 구디 닷겨 창졸의 피하기 어려온디라 정히 위급흐엿더니 홀연
소싱의 소리 갖가이서 나니 덩시 문득 칼홀 감초며 (11권, 622쪽)

(가)는 여씨가 개용단을 먹고 얼굴을 석씨로 변하게 하여 행실을 방탕
하고 더럽게 하자 소현성이 석씨를 잡아내어 문초하는 장면이고 (나)는
이씨와 정씨가 전생부터 악연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꿈의 내용이며 (다)
는 간부모해를 하던 정씨가 직접 이씨를 죽이기 위해 찾아갔다가 실패하
는 장면이다.

먼저 석씨는 자신이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심문자리에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사죄를 청할 뿐이다. 이때 가족들이 나서 석씨의 무죄를 소현성에게 간곡히 고하나 정작 석씨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소현성이 석씨에게 자결을 명하자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고 있다.

쇼계 녁쇼하고 회답 왈 첩의 사오나오미 다른 형스로 닐너는 감심허려니와 무고티독과 작야 나갓다 흐믄 감슈티 아넛느니 첩도 잠간 성교를 보매 군직 거쫓말하라 혼 터는 업더이다 첩이 비록 지은 죄 이실디라도 존괴 도라보내시면 집의 가 부모를 보고 편히 이실 썩름이라 하고로 부모유테를 브리고 청춘의 악명을 싣디 못허야 스스로 죽으리오 작죄 이신즉 붓그려오려니와 첩이 비록 불쫓허나 무죄함미 빅일 곳트니라 빅관으로 칙허시나 참괴 허야 친가의 도라가디 못허도록 혼 죄는 업슨가 흐느니 연이나 존고와 상제 출거허를 직촉허실식 녀지 도라 의지홀 곳이 업스니 친당으로 도라가나 쏘 혼 죽으라 흐시믈 썩듯디 못허야 흐옵느니 작야스틀 다시 일크라 칙허시나 첩은 작죄 업스디라 두렵디 아나이다 (3권, 484-485쪽)

석씨는 소현성에게 무고의 일, 독을 넣은 일, 그리고 지난밤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며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으므로 죽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때 늦은 주장이었다. 이미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심판은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현성도 석씨가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한다고 판단하여 결국 채단과 혼서를 불태우고 만다. 만약 석씨가 처음 심문을 받았던 공식적인 자리에서 명백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더라면 가족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누명을 벗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석씨는 오로지 소현성 개인에게만 사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전달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석씨의 발언은 소현성에게 진실하게 전달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석씨는 가문 밖으로 퇴출당한다. 이로써 석씨는 여씨의 죄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화씨까지 위험에 빠뜨림은 물론 가문의 존속 또

한 위태롭게 만들고 만다. 결국 석씨는 인내를 바탕으로 가문 존속을 꿈꾸었으나 오히려 석씨 자신이 가문을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리고 여씨의 악행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씨 또한 석씨 못지않게 가문 존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집안에 분란이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한다. 따라서 이씨는 가문의 존속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쯤은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굳은 의지는 석씨와 마찬가지로 예기치 않은 분란을 일으키고 만다. 이씨는 정씨를 마주하는 순간 꿈에서 마주했던 여자임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은 전생에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다뤘던 악연이 있었던 것이다. 이후 정씨는 꿈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씨를 죽이고자 했으나 마침 소운명이 찾아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게 된다. 하지만 이씨는 이러한 사실을 소운명에게 고하지 않아 정씨의 악행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턴되 쇼 〽 ㅎ야 보음이 명 〽 ㅎ니 내 임의 덜로 전싱의 원슈로 미자 금세
에 과보를 바드니 엇디 타인을 ㅎㅎ리오 일로조차 ㄹ의 날 해ㅎ는 일이 분
명ㅎ니 오직 고초를 꺾고 원역을 감심ㅎ야 타일 턴일지광을 기드렐거시라
ㅎ야 츠스를 구외에 내디 아니터라 (11권, 623쪽)

이씨는 정씨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이 전생의 잘못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여 이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훗날의 광명을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내는 석씨와 마찬가지로 정씨가 점점 악행의 강도를 높이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씨와의 인연을 알 수 있었던 꿈을 꾸었을 때, 아니 그 이후 정씨가 실제로 자신을 칼로 찔러 죽이려 했을 때 소운명에게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면 정씨의 악행은 멈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인내를 선택했고 이러한 선택은 이후 자신은 물론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결국 이씨는 석씨와 마찬가지로 인내를 미덕으로 간주했으나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

뜨리고 중국에는 자신까지 위협에 빠뜨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형씨는 석씨나 이씨처럼 가문 존속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나 이들과는 달리 자신에게 위협한 상황이 닥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공쥬 씨를 타 시녀로 하야곰 형시를 불러 왈 디당의 년업이 쇠고져 하니 부인은 거름을 앓기디 말고 후원 부용당으로 오쇼셔 혼대 형시 텅과의 심복 시녀 경시드려 왈 내의 명이 오늘 반드시 굿츠리로다 선왕 이러면 가디 마 르시미 엇더노 형시 불연타 데 후흔 빗츠로 청하거늘 내 만일 가디 아니면 사름이 다 날을 질투한다 하니니 출히 죽을디언딩 투명을 엇디 아닐디라 다만 내 잉티하면 디 칠삭이니 일노써 더욱 공쥬의 안등 가시라 너는 멀리서 관망하야 만일 일이 잇거든 급히 승상부의 고히야 날을 구하라 (7권, 440쪽)

위 지문은 명현공주가 형씨를 죽이고자 부용당으로 불렀을 때 자신에게 위협이 닥친 것을 알고 시녀 선에게 당부하는 장면으로 형씨는 자신이 위협에 처할 경우 멀리서 지켜보다가 승상부에 도움을 청하라고 지시한다. 이처럼 형씨는 빠른 판단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공주가 형씨를 다시 모함하여 형씨가 황후 앞에 끌려갔을 때에도 그동안의 사연을 자세히 고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밝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형씨가 앞서 살펴본 석씨, 이씨와 다르게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밝혀 스스로를 위기에서 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형씨 또한 인내를 선택하는 때가 있는데 바로 남편이 관여되어 있을 때이다. 형씨는 명현공주가 들어오면서 퇴출되는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현공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소운성을 냉대하게 된다. 이는 형씨가 가문의 존속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다.

비록 날 거절하기를 이곳티 하나 공쥬부인을 어디다 홀 니 업고 나의 몸이 도로혈 길히 업서 실노 무익하니 그딤 엇디 고집하미 과도하노 그딤 만일 순종하면 내 가히 공쥬귀 강잉하미 이시려니와 불연즉 나의 고집을

점도며 공주 미워할 줄 흥을 도미니라 형시 조금도 감동하는 비출
 두디 아니하고 날오티 ... 구투야 편식할실대 첩이 쏘흔 아버의 집의 도라
 갈 싹이로다 ... 부매 닝소 왈 부인이 방즈하다 나 소운성이 비록 척춘서
 싱으로 인싱이 명현공주 장두의 이시나 쏘흔 숙직을 분변하느니 남군의 쫓
 은 감히 제어티 못하려니와 엇디 형옥의 녀즈조차 제어티 못하리오 ... 언필
 의 안식의 노귀 그득하야 크게 소리 디르고 칼홀 드러 알피 노흔 바를 산...
 이 보으티니 분귀 임의 두우를 게티달디라 (7권, 426-427쪽)

위 지문은 소운성이 명현궁에 가 있는 형씨를 찾아와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장면이다. 그러나 형씨가 계속 거절하자 소운성은 형씨에게 자신을 지나치게 냉대하는 것은 오히려 명현공주를 미워하는 마음을 돋울 뿐 이로울 것이 없다고 화를 낸다. 그러나 형씨의 이러한 냉대는 소운성을 자극하게 되고 소운성의 말처럼 명현공주를 냉대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소운성은 형씨가 자신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두 명현공주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형씨 자신이 남편인 소운성과의 불화를 조장하여 남편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형씨 또한 석씨, 이씨와 마찬가지로 가문의 존속을 위해 인내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남편과의 불화는 물론 남편과 명현공주의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했으며 이로 인해 명현공주의 악행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석씨와 이씨는 ‘가문 존속’이라는 대의명분을 바탕으로 ‘인내’라는 대응방식을 선택했으나 이로 인하여 오히려 악행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형씨는 ‘가문 존속’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남편과의 불화를 일으키고 명현공주의 악행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는 ‘인내’가 불러오는 모순이다. 이들에게 인내란 악행조차 이해하고 참아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오히려 악부(惡婦)를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여성의 욕망을 제한하여 인내하지 않는 여성은 모두 악인으로 몰아가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가문 존속’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석씨와 이씨의 정념이 오히려 악행을 조성하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정반대의 결

과를 양성했던 것이다.

다음은 제3부인인 여씨, 정씨, 정현공주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세 번째 혼사로 가문에 입성한 여성들은 늑혼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그 자리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제2부인들과 갈등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3부인들이 추구하는 욕망은 각기 다른 대응방식으로 나타난다.

먼저 여씨와 정씨이다. 여씨와 정씨는 제2부인을 내쫓기 위해서 간악한 계락을 사용한다. 여씨는 제2부인인 석씨를 가문 밖으로 축출하기 위해서 독약을 써서 살인 누명을 씌우는가 하면 개용단을 써서 석씨로 변한 후 음란한 여자로 만드는 등 여러 악행을 저지른다. 정씨도 이씨를 몰아내기 위해 간부모해를 계획하고 거짓 편지를 써서 이간질을 시킨다. 이때 여씨와 정씨는 제1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정씨는 이씨를 퇴출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여씨는 정씨와는 다르게 석씨를 퇴출시킨 이후에 화씨까지도 퇴출시키려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씨와는 다른 행보로 제1부인과 관계된다. 임씨는 남편의 사랑을 다투는 처처(첩) 갈등에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정씨와 남편의 사랑을 다투지 않는다. 또한 정씨가 정념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씨의 미모 때문인데 이때 임씨의 외모를 보며 자신이 이씨만 쫓아낸다면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정씨가 처음부터 임씨와 남편의 사랑을 다투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화씨는 적극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처처(첩) 갈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므로 결국 여씨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또한 소현성이 성적 욕망에 관심이 없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소현성은 소운성이나 소운명처럼 애정을 편애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달을 공평하게 나누어 세 부인을 대했기에 오히려 소현성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사랑 다툼에 화씨와 여씨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씨와 다르게 화씨까지도 여씨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명현공주는 여씨, 정씨와는 다르게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소운성을 선택했다.

(가) 공쥐 더 쇼년이 한원고직로 휘쇄호미 풍우 ㅁㅌㅄㅅ 보고 그 얼골은 업테여시므로 ㅈㅅㅌㅄ 못하(나 다)만 오사모 아래 흰 귀밧티 옥이 윤퓌호고 고지 반기흙 ㅁㅌㅄㅅ니 황홀호야 못즈오디 어하의 집필 휘쇄호야 금즈작시재 하인이니잇고 샹이 쇼왈 츠는 한님혹스 소운성이라 (2권, 366쪽)

(나) 보고 교터 보매 심정이 뉴출호야 의식 ㅁㄹㅅ 녹으니 정신을 거두어 상전의 주왈 신이 폐하의 은퓌를 닙스와 부귀 극호고 부마를 섹시물 엇즈와 삼중을 저브리디 아닐가 호옵더니 소운성을 보온지 이 곳 신의 평싱 원호던 사름이라 야 ㅁ는 ㅈㅅㅌㅄ의 원을 조츠샤 운성으로 부마를 덩호쇼셔 (2권, 366~367쪽)

(가)는 우연히 황제를 뵈러 나온 공주가 소운성을 보고 한눈에 반하는 장면이며 (나)는 명현공주가 소운성을 부마로 간택해 달라고 황제에게 직접 청을 넣는 장면이다. 그러나 황제가 오히려 소운성에게 이미 조강지처가 있고 아버지인 소현성도 국혼을 좋아할 것 같지 않다며 만류하지만 명현공주는 ‘조강을 폐출호고 신으로써 하가호시물 ㅁ’란다며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여씨, 정씨와는 다르게 명현공주는 가문 내로 입성하기 전부터 가문 사람들과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가) 덩의 쇼녀 명현공쥐 취가홀 년기로디 맛당호 부매 업스디라 특별이 저ㅁ ㅄㅅㅅㅅ를 오봉누하의 못고 공쥐로써 방울 더더 맛(ㅅ)니로 부ㅄㅄㅅ 삼으리라 ... 시어스 운경과 한님혹스 운희 운성이 분연히 나아와 고왈 ㅈ고로 혼인은 풍화의 대관이니 엇디 녀지 여러 스나히를 세우고 난편을 곱히며 어닉 어린 남지 오원의 위 공쥐 물니티를 본밧디 야나 방울을 가 마즈리오 히으 등 열당 표를 올녀 분변호리라 (2권, 367쪽)

(나) 신의 어린 즈식이 본디 비혼 직죄 업고 무식소활하야 비록 취쳐를 아나서 공주의 불감하거늘 흐믈며 참경 형옥의 녀로 결발하연 디 삼 년이라 이제 공주로써 하가흔즉 규합의 테면이 어기여더 도강을 취홀 거시오 만일 그러티 아니면 지엽의 위를 느초디 못홀 배오 문져로써 후를 맞드디 못하야 일당불평하미 혼갖 공주의 해로울 (썩) 아니라 풍화의 관겨하니 봉망성상은 슉피쇼셔 (2권, 369쪽)

(가)는 황제가 젊은 관원들에게 내린 교지인데 공주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꾸민 계략으로 소씨 가문에서 반발할 것을 예상하고 젊은 관원들 모두를 참석시켜 남편을 고르도록 하자 교지를 받은 소씨 형제들이 분개하는 장면이다. 공주가 직접 등장하여 부마를 고른다는 것 자체가 소씨 가문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정서였으며 명현공주가 이미 소운성을 점찍어뒀다는 사실 또한 소씨 가문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씨 형제들은 명현공주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명현공주는 소씨 가문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가문 사람들의 반발을 샀고 형씨라는 조강지처의 자리를 빼앗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명현공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명현공주는 억지로 소씨 가문에 입성하긴 했으나 결국 소씨 가문내로 흡수되지 못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기거하게 된다.

궁을 지으라 하시니 둥시 감역하야 즈운산 소부 겨티 일좌 대가를 디르허니 화동도랑과 쥬함옥난이 일식을 그리오고 비루척각이 반공의 님니하니 즈운산 경티를 더으미라 ... (6권, 378쪽)

황제가 지어준 별도의 궁은 명현공주의 자만심과 교만한 태도를 부각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나 소씨 가문 내로 흡수되지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별도의 궁은 공주가 소씨 가문으로 출입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교류가 끊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반대로 소씨 가문 사람들 또한 언제든 명현공주와의 인연을 끊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명현공주의 악행이 밝혀진 이후에는 소씨 가문으로 통하는 문이 폐쇄되었다. 따라서 별도의 궁은 명현공주와 소씨 가문 사이의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주목할 점이 바로 원망의 대상이다. 앞서 제1부인인 화씨가 남편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명현공주 또한 겉으로는 형씨를 미워하여 제거하고자 하나 실제 원망의 대상은 소운성이었다. 이는 명현공주가 소운성을 대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가) 현궁의 나르니 공췌 싱을 보고 대로하야 크게 꾸지저 왈 널로 더브러 므슴 원췌 잇관디 박디하미 이 디경의 미쳤노요 내 반드시 너의 고기를 덤"이 먹은 후 그치리라 싱이 작식고 다시 말을 아니코 나가니라 (8권, 478쪽)

(나) 므득 천연흐 므음이 발흐니 평싱 처엄으로 갖가이 안자 안식을 온화히 흐고 소리를 느즈기 하야 문왈 수일 스이는 병테 엇더하시니잇가 공췌 므득 노하야 알픽 노흔 바 털여의를 잡아 분녃하야 티니 싱이 임의 마즌디라 불연 변식 왈 내 진실노 어린디라 공췌는 날을 죽이라 흐거늘 내 드러와 문병으로 임의 위의를 일허시니 엇디 녀즈의 창궐흐물 흐 흐리오 (8권, 479쪽)

(다) 공췌 님종의 칠왕이 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녀 문왈 현미 가히 니를 말이 잇느냐 공췌 답왈 첩이 다른 연피 업스디 다만 원흐는 바는 소운성과 형시의 머리를 버혀 저재 거리에 호령하면 죽어 즐거운 녀흔이 되리로소이다 (8권 480쪽)

(가)는 소운성이 석부인의 명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공주를 방문했을 때 공주가 그동안의 한을 내뱉는 말이고 (나)는 공주가 화병이 들어 누웠을 때 측은한 마음이 잠깐 든 소운성이 공주를 찾아오자 공주가 소운성을

철여의로 때리는 장면이다. (다)는 명현공주의 유언으로 소운성의 머리와 이씨의 머리를 저자거리에 걸어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명현공주가 소운성에 대해 얼마나 원망이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다.

결국 여씨와 정씨, 명현공주는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처처(첩)갈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씨와 정씨는 오로지 제2부인을 퇴출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인시도까지 서슴지 않게 된다. 반면 명현공주는 원망의 대상이 소운성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소운성에 대한 원망과 가문 사람들과의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으며 이씨와의 갈등은 대체로 시도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

2.3. 여성 인물 유형의 고착화 : 미화의 대상, 혐오의 대상을 통한 암묵적 강요

<소현성록>은 가문의 영달을 위해 많은 제약을 둔다. 남성에게는 가문, 조정, 국가라는 외적 차원에서 욕망이 억압당하고 거세당했다면 여성들은 가문이라는 내적 차원에서 억압당하고 욕망을 거세당했다. 그러나 특히 여성들에게는 특정 인물상을 미화시켜 암묵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에서 더욱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 <소현성록>이 수신서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책을 읽는 여성 독자 모두에게 이러한 선택을 강요한 셈이기 때문이다.

므릇 녀지란 거시 복어인이라 유순호오미 큰 덕이니 손녀는 심각건대 사롭이 지아빅게 혼자 퉁을 넘고 므른 일을 전일코져 호미 그 탐심과 욕심이 무궁호야 곳칠 줄을 모르미라 …(중략)…가뵈 어려흘 취호도록 원위에 거하여 므음을 평안이 호고 내 힘실만 들게 닷가 사롭의게 붓그리오물 뵈디 말디니 길복을 아니 지으므로 그 혼인이 못되며 괴식을 불평이 호므로 드러올 사롭이 아니 드러오리잇가 세속 녀지 스의를 모르고 혼갓 투기와 악언으로

철거를 범하고 구고씨 불순하며 가부와 결위 화기를 일흐니 실로 그 뜻을
 모르리이다 임의 투기를 흐른 이 지아비를 앓기고 덕국을 미워함이어늘
 문득 불미흔 말과 초독흔 언어로 가부와 힐난하야 은정이 어기여 미워흔
 덕국의 통을 도라보내며 일신의 투위라 득명하고 겨집이 유순흔 덕을 저버
 리고 므음을 상히와 단명홀 덩도를 지옴이 었디 가쇠 아니리오 설스 가뵈
 익둥하야 취흔거슨 다 버리고 내 몸의 은이 완전하나 반드시 그 므움의 일
 편도가 너기리니 이런즉 비록 화락하나 었디 붓그럽디 아니며 이런 일을 모
 르고 다만 날오디 덕국을 업시하고 가부의 쓰디 단정하야 은의 내게 도라왔
 다 혜는 자는 빅만 녀티를 다 닛고 마치 통이만 구하미니 었디 더럽디 아니
 리오 (1권, 468~469쪽)

위 지문은 소현성이 제3부인인 여씨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소현성의 누
 이인 월영이 한 말이다. 월영은 여자가 지아비에게 혼자 총애를 입고 모
 든 것을 맡으려하는 것은 탐내는 마음과 욕심이 무궁하여 그칠 줄 모르
 기 때문이며 자신만을 사랑해 주는 것 또한 화락하지만 부끄러운 일이라
 고 하였다. 또한 자신에게만 은혜가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백만 염치
 를 잊고 총애만 구하는 것이므로 비루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월영의
 말은 <소현성록>이 지향하고 있는 여성상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즉 여성
 들의 개인적인 욕망은 거세되고 오로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동성 간의
 화목을 도모하며 순응할 때 그 여성은 아름답게 추앙받게 되는 것이다.
 최기숙²⁵⁾은 여성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전달하기보다는 규율
 에 맞게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훈련하게 되고 이는 ‘인내하는 여성’을
 ‘부덕’을 갖춘 여성으로 호명하게 하는 사회적 규율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말하는 법이 서툰 여성이 모함을 입거나 억울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제대로 발명하지 못해 죄를 덮어 쓰는 정황 (예컨대, 여씨의
 모함을 입어 억울한 지경에 처한 석씨가 제대로 변명하지 않고 죄를 뒤

25) 최기숙, 『고소설의 감정 문법과 감정기호-〈소현성록〉의 감정 수사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133쪽 참조.

집어쓰는 것(3:20 등)은 이와 같은 젠더적 감성 규율이 내면화된 사례라고 보았다. 따라서 월영의 말 속에 담겨있는 암묵적 요구는 결국 석씨와 이씨, 형씨의 욕망이 각기 다르게 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화’라는 이름 아래 유사한 형상을 부여하였고 <소현성록>을 읽은 독자들은 이들을 유사한 인물군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물 유형을 반복적으로 접한 독자들은 그들이 지향해야 할 여성상이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각인시켜 굴절된 여성상이 추앙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체적이었던 여성들이 각자가 가졌던 개별성을 잃어버리고 단지 가부장적 사회에 최적화된 여성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때 독자와 같이 암묵적으로 강요받는 여성이 바로 소현성의 제1부인인 화씨이다. 얼핏 보면 화씨는 악인처럼 보이나 작가는 화씨를 단순히 투기하는 여성으로만 그리지 않고 동정의 시선을 내비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화씨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조치를 취한다. 이때 작가는 편집자적 논평을 사용하기 보다는 소씨 가문의 주요 일원인 월영과 양부인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소씨 더 화시의 즈가옥호를 그릇 너기나 더의 심히 설위호를 보고 일변 경도조협호를 고이히 너기고 일변 잔잉히 너겨 ㄹ만이 경계 왓 오늘 모친이 반드시 그되로써 아이오술 섬기라 호시리니 천만 불평호 일을 말나 화시 사례하음호더니 부인이 화시를 불너 관복을 넘히라 호시니 명을 니어 나아가 관딤를 밧드러 섬길식 투목으로 그 동지를 슬피니 화시 면식이 여토히야 그 골홈과 썩를 띤매 손이 썰너 쉽디 못호디라 그옥이 애들이 너기더니 관딤를 밧츠매 모든 디 하딤홀시 부인이 휴연히 감충호야 눈물을 느리오니 (1권, 452쪽)

월영은 자신을 욕한 화씨가 괘씸하기는 했지만 혼례복을 준비하며 서러워하는 화씨의 모습에 동정심을 표하고 있으며 양부인 또한 화씨에게 소현성의 혼례 당일에 의복을 정제시키도록 하나 화씨가 손을 떨며 쉽게

입히지 못하자 이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얼핏 보면 작가는 화씨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듯 싶지만 이내 동정의 시선을 제시하여 화씨로 하여금 선과 악의 경계에 서게 만든다. 또한 작가의 시선을 교묘하게 감추고 가문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표출시켜 화씨가 가문 사람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화씨는 작품 내내 자신의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시키지만 이내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내어 혐오의 대상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²⁶⁾ 하지만 화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경우에는 강한 제재가 뒤따르며 가족들의 비난이 커져 가문 내에서의 입지가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화씨는 자신의 욕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욕망을 꺾고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며 가문 내 일원으로 흡수될건지의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만약 화씨가 자신의 욕망을 꺾지 않았다면 가문 밖 퇴출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그만큼 화씨의 성적 욕망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으며 월영의 말처럼 가문의 남성을 독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결국 화씨는 암묵적 강요에 의해서 자신의 욕망을 꺾는 선택을 하게 되고 가문 내 일원으로 재흡수 된다. 독자 또한 이러한 화씨의 선택을 보면서 암묵적으로 선택의 강요를 받게 되는 셈이다.

제3부인들은 대체로 퇴출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26) 이승복은 화씨가 투기 때문에 남편을 원망하고 자기의 화를 스스로 이기지 못해 혼절하기도 하는 인물이지만 결코 석씨를 모해하여 제거하려고 하는 악인은 아니라고 하였다. 소경은 이러한 화씨를 엄히 질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정하게 위로하기도 하면서 화씨의 투기를 제어해 가는데 이는 가부장적 질서의 확립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것은 물론 화씨의 투기를 제어한다는 것 자체가 가부장적 질서를 위하여 가부장적 질서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실인 화씨에 대한 대접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라고 하였다. 비록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정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승복, 앞의 책, 67~68쪽 참조.)

임치균은 화부인, 소영, 임부인이 중간적 존재라고 보고 중간적인 인물은 갈등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심증적으로 최선의 인물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임치균, 앞의 글, 54쪽 참조.)

욕망추구에 온 힘을 다하였으며 결코 욕망을 꺾지 않았기에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 주목할 점은 이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악부가 된 것이 결코 천성에서만 온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석씨와 이씨, 형씨의 ‘인내’라는 대응태도와 남편의 애정편중²⁷⁾이 이들을 악부로 만들었다.

(가) 녀시 그옥이 상셔 자취 희소호를 의려호며 본 소행이 녀식을 멀니호민 줄은 모르고 다만 두 부인씨 호호야 자그를 멀디호민가 사곡호 의식 용출호니 여러 들의 니르러는 문득 녀힘을 닛고 황야의 분주호야 두 부인 방을 괴찰호니 (2권, 471~472쪽)

(나) 츀일 운명이 덩시로 더브러 신정이 흡연호야 서로 즐기물 비길디 업스나 니시의 익원고 정결호 형용을 닛디 못호야 경〳이 탄식고 혼즙을 일우디 못호니 신뵈 고이히 너기더라 … 정씨 십분 뽕평호야 심각호디 이제 남시 귀형 괴상으로 실가 통호매 내의 식피지예로 소싱의 정을 온전호야 누릴 거슬 니시의 용광괴질로써 내의 우히이서 쏘 가부의 통이 다 더고디 도라가

27) 이승복은 처와 첩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이 한 남자의 아내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남편이 등장하지 않는 처첩갈등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남편의 태도는 처첩갈등의 양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남편이 처첩갈등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 역시 갈등을 방지하거나 해결하여 안정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경우와 갈등을 매개하여 증폭시키는 부정적인 경우라고 하였다. 남편의 태도가 부정적인 경우 남편이 첩이나 부실에게 미혹되어 정실을 박대하거나 출거하였다가 나중에 개과하는 것으로 제시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남편 자신에 의해 갈등이 표면화되고 심화되어 처첩갈등에 있어 남편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하였다. 한편 남편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편이 어떤 사유로 집을 비운 사이에 처첩갈등이 표면화되고 심화되지만 남편이 돌아와서 위기에 처한 정실을 구하고 첩의 음모를 밝혀 가족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경우 남편이 갈등을 해결하여 처첩갈등에 대한 남편의 책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승복, 앞의 책, 31~32쪽 참조.) 그러나 <소현성록>에서는 오히려 제2부인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지나치게 커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나친 편애에 불안감을 느낀 제3부인이 모해하는 과정으로 이야기는 진행된다.

고 나쁜 의식 내게 오니 사름이 세상의 처호야 엇디 일 여자를 업시디 못호
리오 흥흥 의식 니러나니 그치 누르기 어려오디 (10권, 585~587쪽)

(다) 형시의 출던흔 즈식과 출뉴흔 덕당을 싱각호야 공주로 비겨 보매 텃
디 그트니 차석홀 쓰름이라 공췌 좌등의 닐너 곶오디 첩이 지은 죄 업스디
부마 종적이 나의 궁의 니러디 아니" 데스논 아라시는가 ... 서러 보고 함
쇼흔대 공췌 보모 냥시 공췌의 말을 더 사름들이 우음을 보고 분완호야 ...
공췌 안식을 변호야 곶오디 부매 작야의 첩의 궁의 와 밤을 디내디 형지 슈
상호야 신성호노라 나가더니 문안의도 오디 아나시니 반드시 형녀를 보라
가도소이다 ... 부매 강잉호야 공췌궁의 왕내호나 일즉 언언에 슈작홀 적이
업스니 궁에 다 슬허호고 공췌 어린 기운과 교궁흔 빗츠로 부마를 지극히
췌디호나 심이 마춤내 혼연티 아니" 그 고집이 여츠호더라 (6권, 383쪽,
387쪽, 392쪽)

(가)는 여씨가 시집은 이후에 소현성의 발길이 뜰하자 소현성이 여씨
를 멀리함을 모르고 두 부인을 총애하여 그런 것으로 오해하여 사특한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다. 이후 두 부인을 몰래 염탐하는 것으로 악행
은 시작된다. (나)에서 정씨는 처음 혼인했을 때에는 소운명과 더불어 행
복한 부부생활을 하지만 소운명이 이씨에 대해 남다른 마음이 있음을 알
고 난 이후부터 시기심이 작동하게 된다. 특히 임씨가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사람들이 총애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외모라면 충분히 소운명
의 정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때부터 이씨를 모함
하기 위한 악행이 시작된다. (다)는 명현공주가 소운성이 자신을 찾지 않
자 집안사람들에게 이유를 묻지만 모두 비웃을 뿐 대답을 해주지 않는
장면으로 가족의 냉대와 소운성의 냉대에 서운함을 느낀 명현공주는 더
욱 교만한 자세로 자신의 자리를 잡고자 애쓰게 되며 이는 악행으로 이
어진다.

이처럼 이들이 악행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남편의 애정편

중이 있다. 물론 여씨의 경우 소현성을 오해하여 벌어진 상황이지만 이 역시 남편의 애정이 편중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석씨와 이씨, 형씨의 ‘인내’라는 대응방식이 결국 세 여인의 악행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말을 비극으로 이끌고 있다.

이때 세 사람의 악행 방식은 다르게 묘사된다. 가장 악독하게 그려지는 것은 여씨이다. 살인미수도 거리낌없이 행하게 되는데 양부인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 그것을 석씨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다.²⁸⁾ 또한 개용단과 외면단이라는 약을 이용하여 석씨로 변신한 후 음탕한 행동을 하여 석씨가 음란한 여자라고 소현성이 믿게 만들고 석씨가 낳은 아들까지 사통하여 낳은 아들처럼 꾸미게 된다.²⁹⁾ 한편 정씨는 남편의 사랑이 이씨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오로지 이씨를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된다. 집안의 가객으로 와있던 성영을 매수하여 이씨가 성영과 사통한 것처럼 꾸미고 이씨의 임신을 이용하여 성영과 사통한 것처럼 간부모해를 했으며³⁰⁾ 이후 직접 죽이려고 나서기도 한다.³¹⁾ 반면 명현공주는 시기와 질투를 드러낸다는 점

28) 녀시 일단 겹혀는 쓰디 이셔 헤오디 존피 아니 날을 의심하는가 허야 기회를 엿더 니 양부인 칭일이 다드르매 세 부인이 흐르식 돌려서 설연현슈홀시 녀시 석시 시 녀로 더부러 동모하고 석시 현슈하는 날 독을 프러 양부인 상의 드리니 이제 석시 는 듀찬을 기걸하고 당의 도라와 의복을 정계홀시 그 썩를 타 용스흐뎃더라 (3권, 477쪽)

29) 둘재는 여의기용단이니 사람이 만일 먹으면 (즉시) 얼굴이 변하야 그 되고져 하는 사람의 얼굴이 되니 이 기모로 먹음과 굶기 기용한다 하는 뜻이오 셋재는 골운 외면회단이니 여의기용단을 먹어 얼굴이 맞고였다가 외면회단을 먹으면 내 늦치 도라오는 고로 이리 지으니 이 삼종 약뉘 감시 천금이 디난디라 녀시 뼈곰 기용단을 어더 일월을 소기고져 쓰디 니러나 2만이 두로 듯보아 구뎃어 외면단과 기용단을 어더 계교를 횡한다 (3권, 481쪽)

30) 상의 가각 성영이 분뎃 인물이 간교흔디라 덩시 회로를 호터 가뎃 인심을 사고 썩 급뵝을 성영을 주어 여즈 〃 흐라흔더니 슬프다 니시의 익운이 다터오논디라 (11 권, 619쪽)

31) 사람을 보디 아니하고 금 〃 의 뵈엇더니 홀연 보니 이 곳 덩시라 만면의 살기를 썩 여 던도히 니러겨늘 쇼제 경아하야 년망이 금 〃 을 헤티고 니러 마줄시 덩시 옷스 이로써 서리2튼 칼홀 썩혀 불분시하고 바로 쇼져를 향하야 디를 의식 급흔디 마춤 시네 다 나가고 방문이 구디 닷겨 창졸의 피하기 어려온디라 정히 위급흔엇더 니 홀연 소성의 소리 갖가이서 나니 덩시 문득 칼홀 감초며 승이 드러 안즈디 (11

에서 여씨와 동일하나 여씨나 정씨처럼 형씨를 간부모해를 한다거나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명현공주의 내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명현공주가 형씨를 세 가지 죄목으로 나눠서 꾸짖는 장면이다.

너 천인이 말을 당돌히 흐거니와 내 엇디 너를 죽이디 아니리오 네 당초의 부마를 고혹계 흐야 병들미 죄 흐나히오 상명을 어더온 후 (죽식을 자랑 흐고) 깎의 세를 썬 겹손티 아니코 부마로 더브러 열낙흐니 음란흐 죄 들히 오 내 임의 당 〃 흐 정실노 죽식이 업거늘 네 비첩으로 감히 잉타흐는 방조 흐미 이시니 죄 세히라 네 엇디 죽기를 면흐리오(7권, 441쪽)

명현공주는 형씨의 죄를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부마를 미혹하게 하여 병들게 한 점, 둘째 부마와 함께 즐겨 음란한 죄, 셋째 자신이 정실인데 첩인 형씨가 잉태한 점을 형씨의 죄목으로 들었다. 이는 결국 소운성이 형씨를 아끼는 모습과 아이를 가진 모습을 질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까지 초야조차 치르지 못한 공주는 형씨가 소운성과 행복하게 살면서 아이까지 가진 모습을 견뎌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기에 소운성이 기름을 붓듯 명현공주의 시기심을 자극하여 결국 그것이 명현공주의 약행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문사람들은 물론 명현공주의 심복인 유모까지도 모두 형씨에게 감화되어 형씨를 보호하는 입장³²⁾으로 바뀌게 되면서 명현공주는 철

권, 622쪽)

32) 아미커나 무어시라 꾸짖는고 드르리라 흐야 〃만이 나아가 드르니 심은 냥시의 인물과 공주를 수죄흐니 형시는 공주의 잔인함과 냥시 통의를 일궈라 일호도 승세 흐야 도 〃며 비웃디 아니 〃 보되 크게 감격흐야 헤오디 더의 어덜미 이긋트니 풍뉴의 남지 엇디 혹디 아니리오 이제 데 중인듯 특이흐문 니르도 말고 그윽흐 암실 의서 더욱 정대흐야 가부의 둥산 곳튼 정을 가랍흐미 업스디 온유흐고 공순흐디 순절흐며 지아비로 더브러 덕국의 혼단 아니문 내시어니와 나의 욕혹과 여소물 임의 꾸지줄 적 비록 도 〃디 아니니 엇디 웃디 아니리오마는 언단의도 이런 말이 업고 도로혀 어던 곳으로 밀위니 이 엇디 속인의 흘 배리오 그 도량이 하히 곳고

저하게 외톨이로 남겨진다. 결국 명현공주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게 되어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절하게 된다. 이렇게 원한이 맺힌 명현공주는 죽는 순간까지도 소운성을 저주하게 되는데 이때 나이 불과 19살이었다. 이때까지도 명현공주는 소운성과 합방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산소조차도 선산이 아니라 왕가의 선산에 묻히게 되는데 가문 사람 모두 다행으로 여기게 된다. 또한 소운성은 명현공주가 죽자 크게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철저하게 명현공주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명현공주보다 더 악독한 행동을 했던 여씨보다 더한 처사이다. 여씨는 살인 미수는 물론 석씨로 변신하여 수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문 축출로 끝나는 반면 명현공주는 죽어서도 미움의 대상이 되며 조롱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 또한 가문의 최고 권력자인 양부인에게 패악을 부린다는 점에서는 화씨와 같지만 화씨는 가정 내 사람들의 품안에서 교화되는 반면 명현공주는 가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버려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렇다면 <소현성록>은 왜 유독 명현공주에게만 더 가혹한 책임을 요구하는가? 악행으로 따지자면 여씨를 따라올 자가 없다. 오히려 명현공주는 형씨에게 악행을 가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시도로 끝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현공주가 더욱 철저히 배척되었던 이유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명현공주가 스스로 소운성을 선택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거리낌 없이 내보인 점, 둘째 이로 인해 소씨 가문과 황실 간에 대립각을 세우게 된 점, 셋째 소현성의 어머니인 태부인을 욕보인 점, 넷째 황제에 대한 반발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명현공주가 스스로 소운성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모든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다. 명현공주의 입장에서는 단지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을 뿐이나 소운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낳고 만다. 특히 명현공주는 소

명현훤미 녀똥요순이라 므룻 인치 이러툷 인정 밧그로 토희훤니 엇디 부마를 훤 훤며 더를 훤훤리오 디더어 사오나온 므음이 화훤야 감동훤니 즉시 도라가 츠후는 다시 형시를 침노티 아니코 덕접이 한상궁과 훤 가지니 (7권, 454~455쪽)

운성을 향한 성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배척 당하게 된 것이다. 이는 살인미수보다 더 혐오의 대상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여성의 욕망, 특히 성적 욕망은 결코 용납되지 못했음을 명현공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명현공주의 욕망으로 인해 가족이 모두 혼사 전에 고초를 겪게 된 점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태부인을 욕보인 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목이었다. 이로 인해 명현공주는 감옥에 갇히는 참혹한 변을 당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소씨 가문이 황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한 몫을 차지한다. 황제가 태조의 태자인 덕소를 죽인 사건에 대해 소현성은 원망함을 이기지 못해 소임은 다하였지만 한동안 시국을 논하거나 정사를 다스리지 않았으며³³⁾ 소운성 또한 황제의 강압에 못이겨 억지로 명현공주와 혼인을 했지만 첫날밤은 거부하며 황제를 비판한다.

남군과 동성을 죽이려 하는 문호의서 심당하여시니 내 만일 후덕하여 그 쓰디 더욱 방조하면 반드시 쇼즈를 죽일 인물이니 처음의 멀리함만 갖디 못 하나이다 (권6, 380쪽)

위 예문은 소운성이 황제의 부도덕성을 지적한 것으로 명현공주의 아버지인 태종황제가 태조의 태자인 덕소를 죽인 일을 비방한 것이다. 소현성은 명현공주가 임금과 동생을 죽이려한 가문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자란 명현공주 또한 자신을 죽일 인물이라고 비방한다. 이에 소현성도 적극적으로 소운성을 계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결

33) 이적의 상이 태조 덕슈를 죽이[시]니 참정이 차아 탄왈 만승의 기업이 비록 크나 지친골육 잔해를 풀넉마티 하니 데 곳 태조의 태조로 타일 덕을 니을 재라 그 죽으며 명」히 알니로다 불승 헛되 도령의 구둔 팔왕 등도 홀 일이 업는디라 드 디어[야반]혹영수도 조시 듯고 문득 마음을 세상의 머므르디 아니코 벼슬을 불의 예 갖디 못하여 소임의 나아가나 범스를 동관의게 미러 보내고 종일토록 입을 여 러 시논과 정사를 다스리디 아니하니 비록 벼슬이 높고 명망이 등하나 과연 스기 가운데는 일홈이 업스니 그 활연 청아함을 가히 알니러라 (4권, 534쪽)

국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명현공주는 다른 악부들보다 훨씬 더 강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반면 형씨는 가문의 존속을 최우선시하나 명현공주를 들일 때 질투를 내비치는 등 정씨나 명현공주와 마찬가지로 성적 욕망을 작게나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물론 가문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이는 형씨가 정씨나 명현공주와는 달리 소운성의 사랑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씨가 남편의 사랑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남편의 사랑은 깊어지는 것이다.

결국 여성이 성적 욕망을 품었을 때는 형씨처럼 남편의 호응을 바탕으로 최대한 걸로 드러내지 않거나 화씨처럼 그 욕망을 버려야만 가문 내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씨나 명현공주처럼 남편의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가문 밖으로 퇴출당하는 것은 물론 혐오의 대상으로 굴절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여성 욕망의 인위적 재배치, 분열되는 자아

3.1. 주체적 여성 욕망의 잠재화

가문소설은 가문 영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소설이지만 처처(첩) 간의 갈등관계는 서사 전개상 필수 요소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욕망은 고스란히 노출되고 여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욕망과 충돌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운명은 결정지어졌다. 따라서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경우 미화된 여성 혹은 암묵적 선택을 강요받는 여성으로 그려지지만 욕망을 포기하지 못할 경우 가문 밖으로 퇴출되어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욕망을 꺾어버려야만 비로소 성취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자체가 여성의 욕망이 굴절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주체의식을 지녔던 여성이 가문의식과 결합되는 순간 그 욕망이 굴절되고 최종적으로는 피동적인 여성으로만 가문 내에 잔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소현성록>이 추구하는 여성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며 전형적인 여성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반복적인 구조를 세 번에 걸쳐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지향해야 할 여성상이 무엇인가를 암묵적으로 독자에게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주목할 점은 모든 갈등 관계가 해결된 시점에서 미화된 여성과 남편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그동안 가문을 위해서라면 개인이라는 존재를 철저히 지우고 가문의 일원으로 수동적인 행동을 하던 여성이 모든 갈등 상황이 종료된 가운데 남편과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모순된 상황처럼 보인다.

(가) 참정이 벽운당의 와 으즈를 희롱하매 닐너 곱오되 너는 언제 당성혀
 여 숙녀를 어더 어슈의 즐거를 닐월고 석시 희움 업시 공티 왈 엇던 숙네
 드러올디 모르거니와 두리건대 혼셔를 부디르고 무함 구박하야 출화 보기
 쉬울가 두리노라 참정이 정식 왈 부인이 내의 언어로 인하야 네일로써 도회
 공티하미어니와 내 쏘흔 못노니 이제 다른 사름이 (내 얼굴) 되어 이에 니
 르면 부인이 가히 의심하랴 ... 내 평일의 부인 언(예) 형시 이대도록 사름
 을 죠롱하를 아디 못하닷다 ... 쇼첩이 엇디 (〃공의) 청명지치를 농하며 녀
 시의 소그미 그르다 하리오 ... 다만 군직 으녀 삼인을 거느리시매 가등이
 술난하니 그 직죄 높고 위엄이 등하를 족히 알디라 즈고 만승지췌 스희를
 다스리매 곁을 업손 등 궁첩의 춤언으로 황후를 폐출하미 구트여 그르디 아
 니하를 이에 썩듯고 마춤 상공이 으즈의 숙녀를 니르실시 슌지 현티 못하니
 하물며 츠의 비록 즈라나 상공 후덕을 밧드러 너디 못하고 불쵸하야 녀즈의
 게 화를 깃칠가 일시의 언급하미러니 ... 참정이 데 곱히 노하야 하를 보고
 스리로 절척고져 하디 데 사름 되오미 구겁디 아닐 배오, 화열하야 그릇하

좌희미 또한 당부의 위의를 일희미라 (4권, 522~523쪽)

(나) 씩이 침소의셔 넷 글을 슈련홀시 형시 칠보를 내여 주취를 업고 우미디 심히 사치호는디라 씩이 잠간 미편히 너겨 무려 왈 부인의 다스리는 배 뜨어시뇨 형시 디왈 이 슈식제귀라 씩이 또 문왈 … 내 그디로 더브러 히로호연디 녹칠 년의 이러툷 사치호 뜻 두엇는 줄 아디 못호닷다 우리 소문이 교목제가로 팔백년을 느려오티 사치호 일이 업서 디 〃 교혹을 닷가 우리 부조의 덕을 숙연호더니 … 그디 다시 더런 고이호 거슬 장념의 두고져 호거든 우리 집의 잇디 말나 형시 텅파의 역시 정식 디왈 첩이 불민호야 성민네의를 상호오니 불승 슈괴호이다 연이나 첩의 칠보 다스리미 낭군의 오년 부마의 사치호 경상과 우웁기의 엇더뇨 드디여 칠보를 쫓더니 그 오직 알퐁 니르매 형시 손으로 미리 나가라 호니 그 아히 가디 아니호다가 업더 더 우는디라 … 이는 날을 어린 스나히로 업슈이 너기미라 교만코 방조호미 엇디 명현공주의 디리오 … 극히 미물호 빗출 지어 쇼영을 통이호고 외당의 머뜨러 뜨리 일을 극히 가찰이 구러 부인을 괴롭게호티 형시 조금도 구겁디 아냐 닝엄호미 호가지오 (9권, 509~510쪽)

(가)는 석씨가 소현성을 비난하는 말로 집안을 다스리는 능력이 부족하여 결국 자신이 쫓겨났음을 예둘러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소현성은 화가 났지만 석씨의 인물됨이 겁냄이 없고 불같이 화를 내고 그릇되었다고 말하기에 장부로서의 위의를 잃는 까닭에 대화를 멈추게 된다. 그리고 한동안 소현성과 석씨는 냉전 관계를 가지게 된다.

(나)는 형씨가 어느 날 장신구로 치장하고 있자 이에 대해 소운성이 사치한다며 나무라는 장면이다. 이에 형씨는 소운성이 부마로 5년 동안 있으면서 사치한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며 조롱하고 칠보를 뜯어냈으며 들어오던 아이를 밀쳐 넘어뜨리게 된다. 이에 화가 난 소운성은 더 이상 형씨를 찾지 않고 쇼영만을 찾아 형씨를 고통스럽게 하고자 했으나 형씨는 이러한 소운성의 태도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냉정하

게 대처하여 갈등은 증폭된다.

석씨와 이씨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까지 인내로써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왔던 여성의 이미지와 상충된다. 지금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불만이나 욕망을 거세해왔던 이들이 모든 사건이 종결된 시점에서 갑작스레 남편들을 질책하는 모습은 분명 지금까지 미화된 모습과 맞지 않다.

그렇다면 왜 제3부인과의 갈등이 모두 종식된 평화로운 시점에서 석씨와 이씨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가. 석씨와 이씨는 형씨와는 다르게 간부모해의 모함을 받게 된다. 이는 석씨와 이씨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며 특히 자식까지 간부모해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석씨와 이씨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공식적인 심문 자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악부가 퇴출된 이후 가문의 존속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그동안 억눌렀던 억울함을 그대로 폭발시켰다. 특히 석씨의 경우 가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인 소현성과 개인적으로 대면할 때에는 결코 자신의 억울함을 억누르지 않는다. 앞서 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석씨는 자신에게 씌어진 무고의 일, 독을 넣은 일, 지난밤에 나갔다고 하는 것 등을 받아들이 수 없다며 강하게 부정하는 모습³⁴⁾을 보인다. 석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발명하지 않았던 것은 가문의 존속을 위해서이지 남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다. 따라서 가문의 존속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석씨가 굳이 소현성에게 굴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석씨가 갈등이 모두 종식된 상황에서 소현성과의 불화를 일으킨 이유는 가문의 존속이 확보된 가운데 나타난 개인적인 분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씨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씨는 정씨로부터 간부모해를 당해 남편은 물론 가문 사람들의 의심을 사 소송상이 돌아와 일의 전말이 밝히기 전까지 심화당에 갇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된다. 특히 시어머니인 화씨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이씨는 오해가 풀린 이후 오히려 자신의 죄라

34) 본 논문 26쪽 첫 번째 예문 참조.

며 자신을 오해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된다. 하지만 소운명만은 달랐다. 소운명이 한동안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이씨를 찾지 못하다가 이씨에게 겨우 용서를 빌었으나 이씨는 소운명을 용서하지 않는다. 소운명이 천 가지로 용서를 빌었으나 이씨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화씨가 나서서 중재한 이후에야 비로소 소운명과 화락하게 된다. 이처럼 이씨도 석씨처럼 가문의 존속과 관련된 상황이 아니라면 소운명에게 굴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석씨와 이씨가 모든 갈등이 종식된 상황에서 남편과의 불화를 일으킨 이유는 가문의 존속이라는 욕망이 실현된 이후 개인적인 앙금을 풀어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석씨와 이씨가 자신의 감정을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소현성록>이 석씨와 이씨를 수동적인 여성상으로만 그린 것이 아니라 감정조절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여성상으로 그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석씨와 이씨의 주체성은 남편에게 수용되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낼수록 남편과 갈등의 골만 깊어갈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여성이 주체성을 버릴 때 뚜렷한 화해의 계기나 사건은 없지만 그래도 유아무야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만약 여성이 자신의 견해를 꺾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시적인 해소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성이 주체성을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화해일뿐이다.

이러한 기싸움은 여성의 주체의식이 가문의식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킨 결과로 보인다. 주체적이었던 여성이 가문이라는 집단 안에 수용되는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철저히 개인의를 감춘 채 굴종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에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신을 굴종시키지 못했던 여성의식이 잠재화되어 남아 있다가 사적인 일에서 남편에게 쏟아져 내린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의식의 잠재마저 남성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결국 가문의 일원이라는 제약 앞에 여성의 주체성은 사장되고 만다. 이는 17세기 의식이 혼재되어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며 점차 가부장적 권위의식이 우위에 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과도

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2. 여성 욕망의 인위적 재배치를 통한 남성 욕망의 실현

조선 초 조선은 건국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고려시대 풍습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주목할 점은 여성들의 대외활동을 제거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찰 왕래부터 금지하게 되는데 이는 유교가 아닌 종교 행위 일체를 부정하는 가운데 고려시대 종교제의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여성들까지 억압을 당하게 된 것이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향촌사회까지 유교적 질서가 확대 보급되자 성리학적 여성관은 이제 온 국가에 보편적인 관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여성교훈서 저술이 일대 유행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저술한 책들은 사족부녀들이 필사본으로 만들어 일상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만큼 권위가 있었으며 이를 매개로 여성 교화정책은 초계층적 전파에 성공하게 된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예학이 발달하며 종법제에 대한 관심과 그 수립에 열망이 증대되었는데 종법제란 적장자를 중심으로 부계직계 가족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가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고조되었고 문벌의식의 과잉현상으로 여성의 정절과 순종은 더욱 강요되었고 내외관도 강화되었다.³⁵⁾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소현성록>이다. 따라서 여성관은 당대 흐름 속에서 결정되어 작품 속에 투과되었으며 여기에 남성 욕망이 결합된 결과 여성의 본질과 관계없이 미화되기도 하고 혐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선 초기의 여성들은 그렇게 인내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굴종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들이 굴종된 모습으로 미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영화³⁶⁾는 조선의 여성상이 지금처럼 인내와 순종, 그리고 굴종되는 모습으로 투영된 것이 불과 200여

35) 최일성·김현정 공저, 『한국여성사』, 백산자료원, 2006, 132~138쪽 참조.

36) 이영화,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 가람기획, 2003, 195쪽 참조.

년 밖에 되지 않으며 18세기 말엽 이후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조선이 부계 중심의 사회구조로 완성된 시기가 18세기 말엽이라는 것이다. 이때부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현격하게 달라졌고 여러 점에서 전대와는 비교할 바 없이 열악한 입장에 놓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소현성록>이 만들어진 17세기 말에는 아직까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평등하게 보장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의식에도 불구하고 가문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가부장적 의식과 결합되는 순간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휘하에 떨어지며 상하관계로 엄격하게 규제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장르 특성은 여성의 의식을 분열시켜 주체적인 여성을 수동적인 여성으로 만들었고 그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던 여성의식의 잠재로 인해 가부장적 남편과 대립각을 형성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가치관을 끝까지 가져가려 노력하면서 이후 등장하는 가문소설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수동적인 여성상이 아닌 과도기적 여성상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남성들이 원했던 여성상과 당시의 실제 여성상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으며 당시 남성들이 여성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성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명현공주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은 유교적인 사상에 입각하여 소학의 이념에 따라 절제를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억압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중세 유럽과 달리³⁷⁾ 여성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억압으로 남성은 욕망을 표출시킬 수 있도록 일부다처제라는 제도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여 남성에게 욕망의

37) 중세유럽 사회가 기독교 사회로 사랑의 대상이 신으로 대체되는 순간 인간의 성은 억압되어 왔다. 여성의 성은 물론 남성의 성까지도 억압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에 대한 절제만이 미덕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혼은 불가하며 외에도 또한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기시다 슈, 박규태 역, 『성은 환상이다』, 이학사, 2007, 162~165쪽 참조)

자유를 허용하게 된다. 이는 처처(첩) 간의 갈등에서 남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여씨, 이씨는 제3부인의 모해를 받고 목숨처럼 여기는 정절까지 모해를 받았지만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남편들은 너무도 쉽게 부인의 정절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부인을 퇴출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또한 발생한 갈등은 남성에게 의해 해결되지 않으며 가문 내 여성 즉 태부인이나 월영 등에 의해서 주로 해결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는 남성에게 의해 만들어진 처처(첩) 관계지만 그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철저히 여성들에 의해 해결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남성의 시선에서 이루어진 이상적인 가정 제도로 여성의 욕망을 억압하고 여성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도록 유도하여 처처(첩)간의 동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남성은 자신의 욕망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채울 수 있었고 그로 인한 갈등은 여성들의 몫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여성의 욕망이 표출된다는 것은 이러한 남성의 이상적인 사회적 구조를 깨뜨리는 행위로 여성이 남성에게 대한 독점력을 표출하는 순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때 여성의 욕망, 특히 성적인 욕망은 일부다처제라는 사회 속에서 여성간의 관계를 파탄시키는 행위이자 동성 간의 화목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혼사 순서에 따른 위계적 질서에 따라서 남편의 사랑을 평등하게 나누며 화해를 도모하며 지내야 할 여성들이 개인 욕망을 표출하는 순간 이러한 이상적인 가정은 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들은 이를 철저히 통제해야만 했다. 그래서 조선은 철저히 남성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이상적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로지 여성에게만 '성'의 제약을 두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인물이 바로 명현공주인 셈이다. 명현공주는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했을 뿐이나 그 욕망이 표출되는 순간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고 동성 간의 화목을 무너뜨리는 반동 분자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따라서 철저히 퇴출 대상이 되어 죽어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남편이었던 소운성이 공주의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등의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가문소설에서 나타난

이상적인 가정은 여성들의 희생 위에 지어진 환상의 공간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가정은 당대 독자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가문소설을 읽은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며느리에게로 유산처럼 넘겨주는 과정에서 남성의 시선은 여성의 시선으로 변하여 어느덧 여성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가정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된다. 독자들이 추구해야 할 여성상은 미화된 석씨와 이씨, 형씨로 굴절되었으며 욕망을 추구했던 여씨와 정씨, 명현공주는 악인으로 인식되어 혐오의 대상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화씨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독자들은 미화된 여성상, 이상화된 가정상을 추구하기 위해 동성 간의 화목을 유도 받으며 화씨처럼 암묵적으로 강요받았던 것이다. 결국 <소현성록> 속 여성은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결국 미화된 여성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여성의 욕망을 인위적으로 재배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가문소설에서 나타나는 처처(처첩)갈등은 한 명의 남성을 차지하기 위해 다수의 여성이 벌이는 쟁투 과정으로 동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특징이 있다. 17세기는 아직까지 가부장제의 질서들이 정비되어 가던 시기로 가부장제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만들어진 <소현성록> 속에는 가부장적 사회를 구축하려는 남성들과 이에 저항하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본고는 작품을 보는 시점을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달리하고 17세기라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의 주체의식이 가문의식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굴절되는 변화과정이 나타났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먼저 갈등 관계를 여성으로 설정하고 여성 갈등의 의미를 위치에 따른

상관관계에 있음에 주목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때 <소현성록>은 혼사 순서에 따라 여성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다. 먼저 첫 번째 혼사로 가문에 영입된 여성은 가문의 영달이라는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지만 개인적인 결함을 설정하여 두 번째 혼사가 이어지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혼사로 가문에 영입된 여성은 개인의 인물됨에 초점을 맞춰 가장 완벽한 여성상을 연출해 냈고 이를 통해 가문소설에서 추구하는 이상화된 여성상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혼사로 영입된 여성은 늑혼이라는 장치를 통해 처음부터 가문 내 위치를 불안정하게 설정하여 악부의 조건을 성립시켰으며 이로 인해 철저히 가문에서 배척되는 혐오의 여성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치적 상관관계는 여성들의 욕망도 다르게 표출시키고 있었다. 제1부인은 개인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가문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며 가문의 일원으로 수용되었지만 제3부인은 불안정한 위치 탓에 성적 욕망이 드러남으로써 동성 간의 화목을 깨뜨려 결국 가문 밖으로 퇴출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2부인은 제3부인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가문 존속이라는 명분하에 이를 인내로 극복함으로써 가문 사람들의 탄탄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악부를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가문은 물론 남편과의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여성들의 주체의식이 가문소설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형적인 인물유형으로 고착화되어 가는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하였다. 주체적이었던 여씨와 이씨, 형씨는 가문 존속이라는 명분아래에서는 자신의 개별성을 철저히 지워버려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고착화되었으나 완벽하게 주체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잠재화되어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가 남편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폭발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졌으며 여성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는 한 남편과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17세기 아직까지 가부장적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시기에 이러한 여성의 주체 의식과 가부장적 권위 의식이 부딪쳐 결국 여성이 가부장적

권위 아래 들어감을 보여주는 과도기적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끝까지 개별성을 유지했던 제3부인들은 가문 밖으로 퇴출당했으며 이들은 악부라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미화된 대상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부정적인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물의 고착화를 통해 여성들에게 암묵적으로 강요된 동성 간의 화목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7세기는 아직까지 가부장적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던 과도기적 시기로 이 시기 가문소설을 통해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처처(첩) 제도는 남성의 시선에서 이루어진 이상적인 가정 제도로 여성의 욕망을 억압하고 여성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도록 유도하여 처처(첩)간의 동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제도였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욕망은 남성의 시선에 따라 철저히 굴절되어 나타났으며 이를 읽은 독자 또한 그러한 시선에 사로잡혀 어느덧 여성의 시선으로 변질되어 이상화된 가정상을 지키기 위해 동성 간의 화목을 유도 받으며 화씨처럼 암묵적으로 강요받았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소현성록>은 17세기에 유통된 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기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여성 의식 또한 혼재되어 나타났고 남성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적인 가정도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과도기적 형태로 나타났다. 그래서 여씨와 이씨가 완벽하게 수동적인 여성상으로 그려지지 못하고 남편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소현성록> 속 가정은 과도기적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시기 만들어진 가문소설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때 과도기라는 말은 전시기와 이후 시기의 충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여성의 주체 의식은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문 존속이라는 욕망아래 인내라는 방식으로 변형되어 주체성을 감췄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남성의 권위 의식에 도전했다. 비록 그것이 작품 속 남성에게 수용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성의식은 충분히 그 과도기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작품 속에 안착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단순히 <소현성록>을 도식화하여 여성들의 위계적 질서를 나누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기존의 견해처럼 유형화된 혼사 순서를 다시 되짚어 살펴보면서 이들 질서에 담겨 있는 남성들의 이상화된 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살펴보고 그 곳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주체적 여성의식을 찾아냄으로써 17세기 <소현성록>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치, 과도기적 특성을 찾아내고자 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정선희, 조혜란 역주, 『소현성록』, 소명출판, 2010, 1~6권.

2. 단행본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34~35쪽, 67~68쪽.

이영화,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 가람기획, 2003, 195쪽.

임치균b, 『조선조 대장편소설연구』, 태학사, 1996, 43~93쪽.

최일성·김현정 공저, 『한국 여성사』, 백산자료원, 2006, 132~141쪽.

기시다 슈, 박규태 역, 『성은 환상이다』, 이학사, 2007, 162~165쪽.

3. 논문

김 석, 「정념, 욕망의 목소리 - 세 가지 정념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45집, 고려대 철학연구소, 2012, 235~259쪽.

노정은, 『<소현성록>의 인물형상화변이 양상-이대본과 서울대 21권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1~101쪽.

박영희, 『<소현성록>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1~258쪽.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자들, 『여성문학연구』 1,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127~154쪽.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과 연구,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69~100쪽.

-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화 연구』 12,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2, 101~126쪽.
- 이주영, 「<소현성록>인물형상의 변화와 의미-규장각 소장 21장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345~367쪽.
- 임치균a, 「<소현성록> 연구」, 『한국문화』 16,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5, 31~73쪽.
- 장시광a, 「<소씨삼대록>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온지논총』 9, 온지학회, 2003, 107~148쪽.
- 장시광b, 「<소현성록> 연작의 여성수난담과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 28, 우리문학회, 2009, 112~165쪽.
- 정길수, 『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264쪽.
- 정선희a, 「가부장제하 여성으로서의 삶과 좌절되는 행복-〈소현성록〉의 화부인을 중심으로」, 『동방학』 20, 동방학회, 2001, 57~84쪽.
- 정선희b, 「17세기 후반 국문장편소설의 딸 형상화와 의미 - 〈소현성록〉연작을 중심으로」, 『배달말』 45, 경상대 배달말학회, 2009, 425~460쪽.
- 정선희c,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인물고찰」, 『한국고전연구』 12, 2005, 37~68쪽.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장편 규방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4, 고소설학회, 1998, 293~327쪽.
- 조용호, 「삼대록 소설의 인물구성」, 『고소설 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199~235쪽.
- 조혜란,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고소설 연구』 36, 고소설학회, 2013, 167~200쪽.
- 최기숙, 「고소설의 감정 문법과 감정기호-〈소현성록〉의 감정 수사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103~139쪽.

Abstract

Emotions for Fight and Divisive Ego : Reproduced in the Family

Novel Women/Hatred

- On *Sohyeonseongrok*

Park, Eun-Mi

One's wife and concubine conflict appearing in the family novel is characterized by a strife which promote homosexuality reconciliation process, a number of women to occupy a grab males. 17th century is a period until the patriarchal system is still patriarchal system in order to have time on his way to ensure the maintenance could not be settled. Therefore, in *Sohyeonseongrok* it made in this period resistance and men who want to build a patriarchal system, and this will generate a conflict between women who wish to pursue their own desires. However, women in this process if they desire and abandon the cause irony that only a desire to abandon the pursuit of his desire seems to be characterized by withdrawal hatred. In the process, women need to pursue and beautification with Saint Woman presenting characters are 'susinseo' for the role of social patriarchal system built by forced even the implied reader as well. Therefore, the reader reads the *Sohyeonseongrok* is forced to agree with those implicit homosexuality reconciliation while achieving an orderly went to the patriarchal system is established.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to pay attention to this aspect subjective Female Consciousness in *Sohyeonseongrok* this the family novel, while

combined with the genre look around the desire of women to be refracted through it implicitly forced homosexuality reconciliation is what is implemented.

Key words : Family Novel, One's Wife and Concubine Conflict, *Sohyeonseongrok*, Hatred, Beautification, Coercion, Woman Desire, Patriarchal System, Homosexuality Reconciliation

■ 본 논문은 2015년 11월 12일에 접수되어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